참여 협력 영광

서울大同窓會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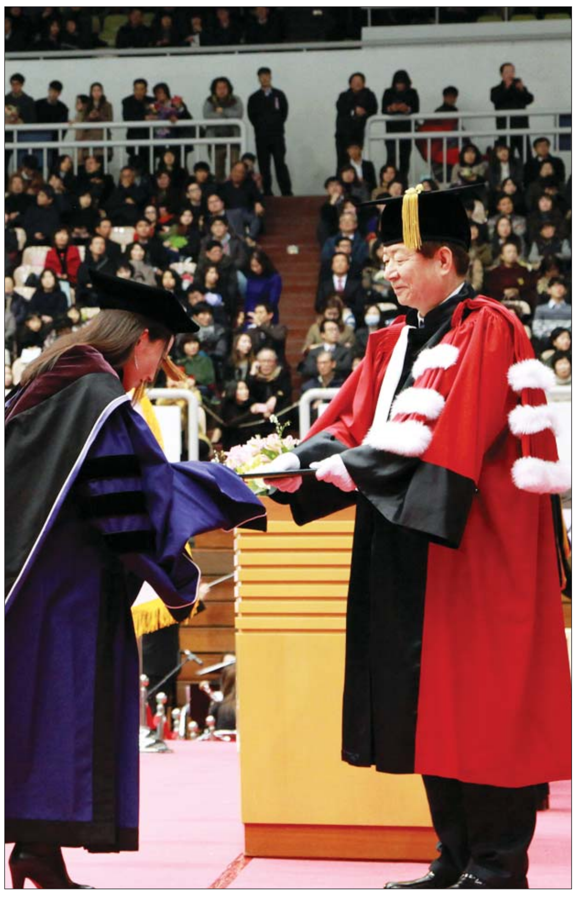
2015년 3월 15일
1976년 4월24일 창간|월간|제444호

www.snua.or.kr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開學1895년·統合開校1946년

"장학금은 꿈 실현할 용기·희망"

3백 78명에 11억원 결연 학생 9명 포함

본회는 지난 2월 27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대강당에서 2015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관련기사 3~5면〉



제69회 전기 학위수여식

지난 2월 26일 모교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제69회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본회는 이날 4천8백48명의 졸업생을 새로운 식구로 맞이했다. 〈관련기사 18면〉

관악춘추

옛 대학본부를 기념관 분관으로

연극관람이나 모임을 위해 이따금 서울 동숭동 대학로에 간다. 대학로…. 오랜 기간 모교 본부와 문리대가 자리하고 있던 곳이다.

그러나 연극의 메카와 마로니에공원으로 변신한 대학로에서 모교의 흔적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다. 예전 모교의 모습을 부조로 떠 공원 한복판에 설치한 '서울대학교 기념 유적비'만이 그곳에 대학로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를 말없이 증언할 뿐이다.

그러나 실망하기는 아직 이르다. 지근에 일제 강점기였던 1924년 경성제국대학 개교 7년 뒤인 1931년부터 모교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할 때까지 대학본부였던 건물이 있다.

초기 근대건축가 朴吉龍이 설계한 이 건물은 부드러우면서도 권위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독특한 형식을 보이고 있다. 1975년 모교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기 전까지 재학했던 동문들에겐 추억 어린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은 엉뚱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 한동안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부 건물로 사용하다가 '예술가의 집'으로 전용하고 있는 것이다. 고색창연하고 유서 깊은 대학본부 건물 유적이 예술인들의 사랑방으로 전락한 것이다.

모교의 옛 대학본부 건물이 이처럼 기구한 운명(?)을 갖게 된 데는 모교와 총동창회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설령 정부의 시책에 따라 캠퍼스를 옮길 수밖에 없었더라도 지켜야 할 유적은 지켰어야 했다.

대표적인 게 이화동사거리 코너에 있는 홍익대 미술대학원 자리다. 이곳은 미대캠퍼스가 있던 곳이다. 디자인포장센터로 바뀌었다가 홍익대가 매입해 대학원 건물로 쓰고 있다. 국립대의 미대캠퍼스였던 곳이 사립대의 미대 대학원 캠퍼스로 변신한 아이러니라니!

이런 추세라면 현재 예술인 사랑방으로 쓰이고 있는 옛 대학본부 건물이 또 어떤 용도로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 차제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곳을 모교 역사기념관 분관으로 단장하면 어떨까? 마침 모교와 총동창회가 개학 1백20주년을 기념해 관악캠퍼스 안에 역사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동문들로부터 모교 역사자료를 모으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 건물을 환수해 이곳에 분관을 개관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일반 시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관악캠퍼스 내 역사기념관보다 훨씬 많은 관람객이 모교의 역사에 관해 관심을 갖고, 또 알게 될 것이다.

언론인이자 역사학자였던 丹齋 申采浩선생은 "역사를 망각한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 서울대의 역사는 재학생과 동문들만이 공유할 사안이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일반인들로 하여금 모교가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어떻게 노력했으며 고민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尹在錫 방송인·본보 논설위원〉

Inside
13 화제의 동문(자폐인사랑협회 金容直회장·오슬로필 金弘博 호른 수석) | 15 동문을 찾아서(한국과학창의재단 金昇煥이사장) | 18 모교 소식 | 23 콩트릴레이(全孝澤동문)

느티나무광장

한 언론인의 사직서

金 希 媛
(인류89-93)
한국일보 문화부장
본보 논설위원

얼마 전 영국의 정통 보수일간지 텔레그래프의 수석 정치평론가인 피터 오본이 '나는 왜 텔레그래프를 그만두었는가'라는 제목의 공개 사직서를 띄워 파란을 일으켰다. 텔레그래프의 경영진이 거대 은행 HSBC의 광고가 끊길 것을 우려해 HSBC에 비판적인 기사를 축소하거나 삭제한 일을 고발한 이 글의 파장은 컸다. BBC, 가디언, 타임스 등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텔레그래프는 사설과 1면 기사로 이들 언론도 결코 광고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반격해 싸움이 확전됐다.

언론인으로서 읽은 오본의 공개 사직서는 단지 광고주의 압력에 대한 내부고발만이 아니다. 이 시대 언론이 처한 딜레마적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낸 자기고백이자 이 사회에 언론의 미래를 고민하게 만드는 화두였다.

1850년대에 창간돼 영국 전역에서 널리 읽히는 텔레그래프는 전세계 유수의 신문이 그러하듯 디지털 파도에 휘청거리고 있다. 발행부수는 급감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다. 1923년부터 2004년까지 81년동안 단 6명의 편집국장이 평균 13.5년씩 편집 방향을 유지했지만 2004년 사주가 바뀐 이후 2014년 한 해에만 3명의 편집국장이 자리에 올랐다. 사실 편집국장(editor)이라는 용어조차 사라졌고('Head of Content'로 바꿨다), 국제부는 대폭 축소됐으며, 인재들이 회사를 떠났다.

조직이 흔들리자 단어 하나를 따져가며 정확한 보도를 위해 애쓰던 전통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밀히 구분해 쓰던 'deer hunting'과 'deer stalking'을 혼용해 쓴 자사 기사를 두고 오본은 "간부들은 두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상관도 않겠지만 우리 독자들은 알고 있다"고 한탄했다. 오보라는 게 알려졌는데도 '가슴 3개 달린 여성'에 대한 온라인 기사를 내보낸 것에 대해선 "(온라인 조회수에만 급급해) 신문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본을 더욱 좌절하게 만든 것은 경영진의 반응이었다. 광고주의 압박에 뉴스 보도가 영향을 받는 것을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공짜 온라인 콘텐츠가 신문만큼 수익을 내지 못하고 충성스런 독자들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는 오본의 우려는 "모르는 소리 마라"고 일축했다.

디지털 모바일 시대에 다른 콘텐츠처럼 뉴스 역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신문사의 생존은 불안해졌다. 우리나라는 일찌감치 IT산업을 장려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에 소홀했던 터라 상황은 더 심각하다. 그런데 이를 그저 각자 언론사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오본이 지적했다시피 자유 언론이 건강한 민주 사회 유지에 필수이기 때문이다. 반사적으로 클릭해 15초쯤 눈길을 머물게 하는 흥밋거리 외에 이 사회가 언론에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 '기레기'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기자란 정치적 성향이나 개인적 이해득실을 떠나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소수 약자를 대변할 것을, 정치권력을 견제할 것을, 제도적 문제와 기득권층의 비리를 파헤칠 것을 임무로 함을 암시한다.

우리도 오본이 던진 문제를 곱씹어볼 때다. 상업주의 언론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가능케 했다. 디지털 시대에 시장에서 무너지고 있는 언론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관악시단

길앞잡이 장례식

金 屋 成(종교92-99)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시인

베란다 유리창을 닦다가 창틀 밑에 떨어진
길앞잡이의 주검을 찾아냈다.
유리창에 이마를 짓찧으면서 내게 건네줄
다급한 전갈은 무엇이었을까.

빛에 따라 색이 변하는 이 풍뎅이의
등딱지에는 금록, 금적, 금록청의
사금파리들이 촘촘히 박혀있다.

잡힐 듯 잡힐 듯하면서도 멀어지기만 하던
보석-풍뎅이, 그가 안내해 주던 길은 언제나
종잡을 수도, 끝도 없었다.

나의 길은 내가 앞장을 서는 게 옳았다.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는가.
나보다 빠른 날개들만을 좇았으므로

껍데기가 가볍다.
서둘러 그를 바람에 띄워 보낸다.

동문칼럼

해외 대학의 동문 멘토링

朴 燦
(무기재료82-86)
모교 경력개발센터 소장
재료공학부 교수

지난 2013년 서울대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진로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서울대 학생들이 진로 결정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는 자신의 흥미와 성격, 능력, 직업의 안정성 등을 꼽았으며, 졸업 후 진로로는 취업, 로스쿨을 포함한 국내 대학원 진학, 유학, 각종 시험 등을 준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는 이처럼 학생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 진로요인들을 고려해 자신의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전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학내기관이다. 이를 위해 개인진로상담과 1:1 취업컨설팅을 비롯해 다양한 진로 및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동 조사에 따르면, 서울대 학생들이 진로 및 취업지원 체계와 관련해 학교에서 지원해 주기를 가장 기대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련 정보 제공과 동문선배와의 멘토링 기회 확대였다.

2006년에 설립된 이후, 경력개발센터에서는 진로탐색 멘토링, 스누포럼 동문선배와 함께하는 멘토링, 선배에게 듣는 직장이야기 등 동문선배와 함께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해 왔으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선후배 간 교류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MIT, 하버드대, 옥스퍼드대와 같은 외국 우수대학의 사례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

MIT의 경우 'Freshman Alumni Summer Internship Program'이라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교과과정 내에서 사회에 진출해있는 졸업생들로부터 직접 특정 산업분야에 필요한 역량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신입생 시기부터 졸업생 멘토와의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버드대의 경우에는 'Job Shadowing Program'을 통해 재학생들이 졸업생들의 직장을 방문해 최장 2주까지 관심분야 업무를 직접 배우고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선후배 간 네트워킹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옥스퍼드대는 '동문포럼'이 활발할 뿐만 아니라 각종 세미나, 워크숍, 1:1 멘토링 형태의 프로그램을 통해 동문 선후배들 간 교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들 대학들은 학교 차원에서 재학생-동문 연계 강화에 큰 관심을 쏟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 또한 후배들과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최근 대학생들의 진로고민과 졸업 후 취업에 대한 고민의 정도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여러 언론 기사들을 보며, 이제 우리 서울대 학생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선배들은 어떤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고, 무엇을 준비했을까?'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시기가 재학생들이 졸업생 동문들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이기도 할 것이다.

경력개발센터는 앞으로 선후배가 꾸준히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 그리고 졸업 후 동창회 회원이 될, 졸업을 앞둔 재학생과 동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총동창회를 통해 동문들에게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후배들이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진출해 꿈을 이루고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발 앞서 사회에 진출한 선배들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주길 기대해본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협력·영광

발행인 徐廷和
편집인 金英豪
인쇄인 朴承熙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장학빌딩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 전화(02)702-2233 팩스(02)886-2218
• e-메일 snua1969@naver.com

논설위원 金哲洙, 金鎭銅, 宋丙洛, 李炯均, 安炳璨, 丘月煥, 金好俊, 宋鎭赫, 李五峰, 洪性萬, 安國正, 李成俊, 李慶衡, 李元馥, 文昌克, 姜天錫, 高永才, 金仁圭, 徐玉植, 李元燮, 裵仁俊, 嚴基永,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李東植, 鄭世溶, 朴聖姬, 許英燮, 鄭興寶, 金亨珉, 李東官, 金侊日, 李啓聖, 金鎭國, 吳在錫, 崔英勳, 李容式, 許承虎, 金昌均, 李先敏, 全榮基, 姜孝祥, 李相起, 金光德, 鄭星姬, 鄭在權, 申然琇, 姜京希, 權石泉, 鄭然旭, 蔡耕玉, 許文明, 申藝莉, 金伶姬, 金希媛, 洪智英, 李佳潁

홍보본부장 安興燮 편집장 金南柱 편집부 기자 邊廷洙, 朴秀瑋

본회 徐廷和회장은 "여러분은 지성과 겸손과 봉사의 역량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모교 成樂寅총장이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효도는 지도자가 영원히 지녀야 할 덕목"

효자 吳勇錫군, 외국인, 새터민 학생 등 수혜

본회(회장 徐廷和)는 지난 2월 27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대강당에서 2015년 1학기 장학금 및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간경화로 투병 중인 아버지에게 자신의 간을 이식해주고 재수 끝에 입학한 吳勇錫(컴퓨터공학부 1년)군과 외국인 학생, 탈북자 출신의 신입생 등 총 3백78명의 장학생에게 11억원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동문들의 각별한 배려로 지난 2014학년도 1학기보다 장학생 수가 30% 증가했다.

〈특지장학금 수여 현황 4~5면 참조〉

특히 이날 수여식에는 총동창회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결연사업에 徐廷和회장을 비롯해 鄭八道자문위원장, 姜信主·李仁浩·禹仁性·黃彩皓자문위원이 참여해 9명의 학생과 인연을 맺었다. 이들은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뿐 아니라 생활비 지원, 진로 상담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徐廷和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吳勇錫군을 비롯해 많은 훌륭한 후배들을 만날 수 있어 참으로 가슴 뿌듯하다"며 "지성의 효도는 지도자가 영원히 지녀야 할 덕목의 근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영재"라며 "여러분의 양어깨에는 국가의 미래경쟁력이 달려있기에 지성과 겸손과 봉사의 역량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를 선도하는 폭넓은 인재가 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갖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정진해 나아가달라"고 당부한 뒤 "총동창회는 올해 30억원의 장학금 전달 등 여러분과 같은 준재를 성의를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모교 成樂寅총장은 격려사에서 "선배들께서 재학생 후배들에 대한 사랑의 뜻으로 고귀한 장학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서울대를 대표하는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국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냐에 따라 우리 서울대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의 온도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주에 동경대를 다녀오는 등 여러 해외 대학과 학생, 학술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서울대가 대한민국 대표를 넘어 세계 속의 대학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학생을 대표해 兪昇在(자유전공학부 4년)군은 "동기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똑똑하고 멋진 학우들과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마련해주셨던 선배들을 만나면서, 또 오늘과 같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큰 도움을 받으며 '꿈'이라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 서니 제게 큰 도움을 주셨던 한 선배께서 '열정으로 가득한 하나의 꿈이 경제적인 일로 좌절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며 "저희에게 지원해주시는 이 장학금은 그렇기에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닌 꿈을 실현할 용기이자 희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徐廷和회장, 林光洙명예회장, 成百詮·郭永駜·金讚淑·鄭潤煥·姜寅求·朴浩田·金鐘夑·鄭忠始·鄭八道부회장, 黃彩皓자문위원, 재단법인 관악회 權永昊·朴明潤·金秉順이사를 비롯해 모교 成樂寅총장, 金鍾瑞교육부총장, 체육교육과 金善振교수가 참석했다.

또 明泰鉉특지장학회 明泰鉉동문, 학교법인 양지학원 金鍾祺이사장, 李相範변호사, 李元珪특지장학회 李元珪동문, 미대동창회 劉仁洙회장, 가천대 의학전문대학원 朴國洋원장, 吳應鉉·秋景玉특지장학회 秋景玉여사, 鄭八道·李慈倖특지장학회 李慈倖여사,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池鍾立이사, 朴浩田·金英姬특지장학회 金英姬여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南〉

林光洙특지장학금 수여

金讚淑·吳東英특지장학금 수여

朴浩田·金英姬특지장학금 수여

鄭八道결연장학금 수여

金鐘夑특지장학금 수여

黃彩皓결연장학금 수여

明泰鉉특지장학금 수여

朴明潤특지장학금 수여

權永昊특지장학금 수여

成百詮특지장학금 수여

吳應鉉·秋景玉특지장학금 수여

郭永駜특지장학금 수여

李相範특지장학금 수여

수학과특지장학금 수여

2015년 1학기 특지장학금 수여 현황

〈장학기금 출연순〉

장학회	설 립 자	수 혜 자	장 학 금
洪性大	洪性大(수학57－63) 학교법인 상산학원 이사장	具娟才(전기정보공학2)	3,500,000
		金秀姬(지구과학교육1)	3,500,000
		孫沅希(의류3)	3,500,000
		承孝眞(화학생물공학4)	3,500,000
		신두섭(경영1)	3,500,000
		李成仁(언어4)	3,500,000
		全孝濱(정치외교4)	3,500,000
		朱陽濬(건설환경공학2)	3,500,000
		崔先我(생명과학2)	3,500,000
		黃 琮(농경제3)	3,500,000
앰코 金柱津	金柱津(법학54입) 앰코테크놀로지 회장	南秀玟(노문2)	1,530,000
		宋琯宇(의류3)	3,296,000
		尹多賢(지리교육2)	1,649,000
		趙漢旭(사회과학계열2)	2,760,000
		鄭惠珍(재료공학1)	4,155,000
李吉女	李吉女(의학51－57) 가천대 총장	李垠知(화학1)	2,996,000
		洪志顯(식품동물생명공학1)	2,996,000
吳東英 ·金讚淑	吳東英(조선항공54입)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부인 金讚淑(치의학56－60) 청아치과병원 이사장	姜正鎭(치의학碩)	4,000,000
		김한별(치의학碩)	4,000,000
		羅炫俊(치의학碩)	4,000,000
		조은별(치의학碩)	4,000,000
鄭八道 ·李慈倖	鄭八道(AIP 1기) 코리아랜드캄파니 회장 부인 李慈倖여사	姜羅垠(인문계2)	2,460,000
		金兌衍(독어교육2)	2,460,000
		朴柱雄(정치외교1)	2,629,000
		朴俊英(화학생물공학3)	3,020,000
		申周容(인문계2)	2,460,000
		신지원(사회과학1)	2,629,000
		柳珍雅(독어교육2)	2,467,000
		李俊珩(통계2)	3,005,000
		林佳鉉(수의학2)	3,094,000
		崔雲午(재료공학2)	3,020,000
		韓戴喜(수의학2)	3,000,000
黃海根 ·李金玉	黃海根(토목공학54－60) 동일기술공사 회장 부인 故 李金玉여사	趙影訓(건설환경공학2)	3,029,000
		尹惠娟(정치외교2)	2,460,000
李鍾基	李鍾基(경영69－73) 상영무역 회장	吳惠姈(의학4)	2,500,000
鄭晳圭	鄭晳圭(화학공학48－52) 前신양문화재단 이사장	吳相允(재료공학碩)	2,500,000
		崔智慧(전기정보공학碩)	2,500,000
		洪敏義(컴퓨터공학碩)	2,500,000
化學科	화학과동창회	崔世鍾(화학4)	2,996,000
金秉順 ·李志鎬	金秉順(AMP 4기) 이영회연합회 상임고문 장남 李志鎬(의학77－83) 모교 의대 정형외과 교수	金東延(법학碩)	1,000,000
		梁榮敏(법학碩)	1,000,000
		尹羲喆(의학3)	1,000,000
		李芝雨(의학3)	1,000,000
金鍾祺	金鍾祺(생물교육51－55) 학교법인 양지학원 이사장	김종완(바이오시스템소재1)	500,000
		박지훈(기계항공공학1)	500,000
		秋丞植(경제1)	500,000
		최우진(독문1)	500,000
林光	林光洙(기계공학48－52) 임광토건 명예회장	權大善(재료공학4)	3,020,000
		金冏殷(정치외교2)	2,460,000
		金東爕(국어교육3)	2,460,000
		金旼貞(자유전공2)	3,020,000
		金煐眞(간호3)	2,996,000
		金廷娟(응용생물화학1)	3,165,000
		金鎭永(재료공학4)	3,020,000
		金津杓(인문2)	2,460,000
		金時鉉(국문4)	2,460,000
		盧泫周(경제4)	2,460,000
		潘政佑(약학4)	4,513,000
		愼鏞馥(산업공학2)	3,020,000
		沈揆昇(윤리교육3)	2,460,000
		梁普現(경영3)	2,460,000
		梁鎭洙(농경제사회4)	820,000
		禹珍奎(동양화2)	3,679,000
		劉燦鍾(농경제사회4)	2,460,000
		尹基龍(자유전공4)	2,698,000
		李圭浩(식물생산과학3)	2,996,000
		李棟基(치의학碩)	3,165,000
林光		李秀彬(자유전공3)	2,698,000
		李定訓(국문3)	2,460,000
		李知玧(정치외교2)	2,460,000
		林智愚(인문2)	2,460,000
		崔悠珍(조경지역시스템공학2)	2,996,000
		崔兌煥(건축4)	3,020,000
		황휘민(소비자아동4)	2,460,000
		韓晟洙(바이오시스템공학4)	1,498,000
鄭忠始	鄭忠始(화학공학72－76) 세진에이엠 대표	金哉旻(통계3)	2,000,000
		李世榮(화학생물공학碩)	2,000,000
郭永駜	郭永駜(토목공학56－60) 도화엔지니어링 회장	姜知佑(건설환경공학2)	3,020,000
		金起延(건설환경공학4)	3,020,000
		金聖仲(물리천문2)	2,996,000
		金義眞(건설환경공학4)	3,020,000
		이영재(식품동물생명공학1)	3,165,000
		李泳炫(물리천문3)	2,996,000
		李昌爕(전기정보공학2)	3,020,000
		李蒼熙(건설환경공학3)	3,020,000
		鄭仁洙(건설환경공학2)	3,020,000
		丁昌炫(생명과학2)	2,996,000
李海遠	李海遠(행정51－55) 한국우드워드 회장	金熹正(인류4)	2,000,000
		李始恩(영문4)	2,000,000
明泰鉉	明泰鉉(기계공학46－50) 前송원기업 대표	심상솔(간호1)	2,500,000
牧村 5父子	故 金道昶(법학43－47) 前법제처장·변호사 3남1녀	權鉉升(불문2)	3,500,000
張學淳	張學淳(토목공학46－50) 삼양ENR 회장	백소영(건설환경공학碩)	2,000,000
		沈仁台(건설환경공학碩)	2,000,000
		이민주(건설환경공학碩)	2,000,000
郭東憲	郭東憲(법학61－65) 곽동헌법률사무소 변호사	한형성(생물교육2)	2,996,000
李相範 ·高姙錫	李相範(행정53－57) 변호사 부인 高姙錫여사	黃圭祥(법학碩)	7,000,000
保大院	보건대학원동창회	金惠林(보건학碩)	1,000,000
		孫瑞熙(보건학碩)	1,000,000
		尹秀斌(환경보건학碩)	1,000,000
		丁斗永(보건학碩)	1,000,000
數學科	수학과동창회	林燦祐(수리과학2)	1,000,000
		蔡倫騎(수리과학2)	2,000,000
		崔光賢(수리과학2)	2,000,000
		黃南赫(수리과학2)	2,000,000
崔相弘	崔相弘(기계공학54－58) 한일MEC 회장	朴珍永(기계항공공학4)	3,020,000
		이성권(기계항공공학4)	3,020,000
禹仁性	禹仁性(기계공학58－62) 인터비즈시스템 회장	李政爕(기계항공공학4)	3,020,000
姜信浩	姜信浩(의학46－52) 동아쏘시오그룹 회장	공우식(경제2)	2,460,000
		金紋炷(산림과학3)	2,996,000
		김재은(자유전공3)	2,460,000
		송은우(영문4)	2,460,000
		辛炯燁(건축4)	3,020,000
		安案[illegible](경영4)	2,460,000
		안효지(자유전공2)	2,698,000
		梁兌熏(자유전공4)	2,460,000
		李在勝(사회과학2)	2,460,000
		李準晟(경영3)	2,460,000
		이충헌(체육교육4)	2,996,000
		이호연(체육교육3)	2,996,000
		장휴산(건축4)	3,020,000
		정재훈(환경계획碩)	3,998,000
		曺受延(생명과학2)	3,829,000
		朱基佑(국어교육3)	2,460,000
		車承玟(작곡4)	3,944,000
		韓[illegible](전기컴퓨터공학1)	3,855,000
吳應鉉 ·秋景玉	故 吳應鉉(섬유공학67－71) 前반월나염시범단지 대표 부인 秋景玉여사	곽진기(재료공학4)	1,262,000
崔喜藏	崔喜藏(섬유공학58－64) 대성사 대표	朴柱炫(음악과碩博)	3,000,000
그린	농대 그린장학회	徐優根(식물생산과학3)	2,500,000
金相廈	金相廈(정치45－49) 삼양사 회장	金承喜(디자인4)	3,679,000
		金智寅(조경시스템공학4)	2,996,000
		文보름(산업공학碩)	3,855,000
金相廈		邊根迎(산업공학碩)	3,855,000
		劉鎭誠(원자핵공학2)	3,020,000
		林成源(체육교육2)	2,996,000
		鄭珉鎬(행정博)	3,131,000
		崔玹禎(과학교육碩)	3,829,000
金鐘爕	金鐘爕(사회사업66－70) 스페코·삼익악기 회장	權希珍(기악4)	3,944,000
		姜京斌(지리3)	2,698,000
		길소연(언론정보4)	2,460,000
		金民基(정치외교4)	2,467,000
		金志勳(체육교육3)	2,996,000
		朴三鶴(산림과학4)	2,996,000
		朴松伊(사회복지碩)	3,131,000
		박해진(정치외교4)	2,460,000
		朴玄鎬(서양화4)	3,679,000
		白아름(사회복지3)	2,460,000
		이상효(기계항공공학4)	3,020,000
		禹恩惠(기악4)	3,944,000
		尹程炫(기악2)	3,944,000
		李雅賢(기악1)	4,113,000
		이형민(응용생물화학3)	2,996,000
		趙重贊(체육교육3)	2,996,000
		洪鎭宇(체육교육4)	2,996,000
金殷宗	金殷宗(경제59－63) 뉴프라이드그룹 회장	金俊漢(체육교육4)	3,000,000
		全宣珉(정치외교3)	3,000,000
		鄭完基(체육교육4)	3,000,000
		허문환(체육교육4)	3,000,000
		허재영(지구과학교육3)	3,000,000
일산회	金振儀(축산59－65) 제일실업 고문 일산회 모임	李相哲(동물생명공학3)	3,000,000
池昌壽	池昌壽(상학55－59) 한국알콜산업 회장	李明宰(화학생물공학3)	3,020,000
희망	朴희망(AIC 9기) 남성정밀 회장	박미나(의학博)	4,796,000
李金器	李金器(약학55－59) 일동후디스 회장	金珉京(제약5)	3,000,000
愼昌宰	愼昌宰(의학72－78) 교보생명보험 회장	金度勳(의학碩)	2,500,000
		金東明(의학碩)	2,500,000
		金詩媛(의학碩)	2,500,000
		金營昊(의학4)	2,500,000
		金裕旻(의학2)	2,500,000
		南昌賢(의학碩)	2,500,000
		朴慶訓(의학2)	2,500,000
		白庚澔(의학2)	2,500,000
		梁孝俊(의학碩)	2,500,000
		呂武漢(의학2)	2,500,000
		兪智善(의학碩)	2,500,000
		兪皓善(의학2)	2,500,000
		尹修彬(의학碩)	2,500,000
		이슬기(의학碩)	2,500,000
		李惠仁(의학3)	2,500,000
		曺京德(의학碩)	2,500,000
		崔晟埈(의학碩)	2,500,000
		최세림(의학4)	2,500,000
		崔秀珍(의학4)	2,500,000
		玄智賢(의학4)	2,500,000
		洪尙彬(의학碩)	2,500,000
		黃榮輝(의학碩)	2,500,000
申明珪 ·朴冠鎬	故 朴冠鎬(화학교육47－51) 前동국대 명예교수 부인 申明珪(생물교육48－54) 前관악회 이사	金尙炫(물리교육2)	2,996,000
		金炯珍(불어교육3)	2,460,000
		文徐淵(생물교육2)	2,996,000
		리사위터(체육교육碩)	3,841,000
		박성준(생물교육2)	2,996,000
		朴秀[illegible](사회교육2)	2,460,000
		孫源基(화학교육3)	2,996,000
		이지현(지구과학교육4)	2,996,000
		林希珍(지리교육2)	2,698,000
		鄭主鉉(체육교육2)	2,996,000
		丁河榮(사회복지1)	2,629,000
		崔睿眞(경영4)	2,460,000
金正澈 ·金正湜	故 金正澈(건축52－56) 前정림건축 명예회장 金正湜(건축54－58) 목천김정식문화재단 이사장	金端雅(건축2)	3,020,000

부친에게 간 이식…4년 전액장학금

吳 勇 錫
컴퓨터공학1년

먼저 4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주신 총동창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건강 등의 이유로 부친께서 언제까지 회사를 다니실 수 있을지 조금은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마음의 부담을 많이 더셨습니다.

수험생 시절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주고 몸도 능력도 서울대 올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재수를 하며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긴 싫어 당시 고향 인근의 국립대에 원서를 냈으나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잘된 일이긴 하지만요. 이과 수험생을 둔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어머니는 의대 진학을 바라셨습니다. 이과를 선택하긴 했지만 손재주가 없습니다. 수술을 비롯해 손으로 뭔가를 하는 일에는 자신이 없어 컴퓨터공학을 선택했습니다. 프로그램 등을 설계하는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신입생이라 좀 더 경험을 통해 제 적성을 찾아보겠지만, 지금은 우선 IT보안전문가를 목표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장학금을 주신 총동창회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회 일반장학생 명단

(괄호안 전공·학년)

▲**인문대** 김규성(국사2)·文泰泳(언어4)·박예지(서문3)·梁海珍(철학3)·庾시내(영문2) ▲**사회대** 金世瑩(인류2)·盧賢卿(사회복지4)·都昊泳(심리2)·朴信由(언론정보4)·蘇在炯(지리4)·尹畯源(사회3) ▲**자연대** 徐禎彬(통계2)·李承娥(생명과학3)·張元眞(물리천문3)·丁愚宰(화학4) ▲**간호대** 李京珉(간호4) ▲**경영대** 權 一(경영3)·崔宰榮(경영3) ▲**공대** 곽서현(기계항공공학3)·金曉中(건축2)·朴長根(원자핵공학3)·吳勇錫(컴퓨터공학1)·吳平錫(컴퓨터공학3)·최지은(재료공학2) ▲**농생대** 朴玟卿(바이오시스템소재4)·徐周瑩(조경학2)·梁多尹(식품동물생명공학3)·李畯雨(응용생명화학2)·진한샘(농경제3) ▲**미대** 張宇宙(서양화4) ▲**사대** 羅商洙(국어교육2)·裵燕娥(지리교육2)·徐恩美(생물교육3)·成惠璘(영어교육4)·全龍培(물리교육3) ▲**생활대** 金知映(소비자아동2)·李玹圭(소비자아동4) ▲**수의대** 유보경(수의학4) ▲**약대** 洪아름(약학4) ▲**음대** 金 璟(국악3) ▲**의대** 奇兌鴻(의학1) ▲**자유전공** 兪昇在(자유전공3)·洪先基(자유전공2) ▲**치대원** 崔然輝(치의학2) ▲**보대원** 洪賢錫(보건학2) ▲**행대원** 羅慧善(행정2) ▲**환대원** 張爀權(환경조경1) ▲**국대원** 沈다인(국제2)

각 단과대학(원)동창회 장학금
2백32명에 5억3천7백21만원

▲**간호대동창회**(회장 梁光姬)= 13명 : 8백90만원 ▲**농생대동창회**(회장 李賢秀)= 71명 : 1억4천만원 ▲**법대동창회**(회장 金東建)= 24명 : 8천4백83만원 ▲**사대동창회**(회장 李揆澤)= 12명 : 2천6백83만원 ▲**상대동창회**(회장 成耆鶴)= 80명 : 1억9천6백80만원 ▲**생활대동창회**(회장 崔明珍)= 4명 : 8백만원 ▲**수의대동창회**(회장 李文漢)= 3명 : 1천1백85만원 ▲**약대동창회**(회장 李慶秀)= 2명 : 5백만원 ▲**음대동창회**(회장 申秀貞) =5명 : 5백만원 ▲**의대동창회**(회장 朴容昡)= 6명 : 3천만원 ▲**치대·치대원동창회**(회장 朴健培)= 4명 : 1천2백만원 ▲**보대원동창회**(회장 裵吉漢)= 4명 : 4백만원 ▲**환대원동창회**(회장 李完永)= 4명 : 4백만원

장학회	설 립 자	수 혜 자	장 학 금
鄭潤煥	鄭潤煥(임학56－62) 일성화학 사장	金率怡(산림과학4)	2,000,000
		呂東建(산림과학3)	2,000,000
南正鉉	南正鉉(건축57－61) 대우테크 고문	徐禎珠(건축碩)	3,855,000
		咸英傑(건축5)	1,510,000
壽岩	權永旲(약학55－59) 덕흥상사 회장	朴棟願(약학博)	4,720,000
		裵綠圓(약학碩)	4,720,000
		崔 勳(약학博)	4,889,000
		片垣智(약학碩)	4,889,000
		邢成羽(약학博)	4,720,000
元日	鄭啓泳(상학61－66) 원일전선판매 회장	김도연(원자핵공학4)	3,020,000
		박준혁(경제4)	2,460,000
		박상현(경제2)	2,460,000
		백인균(경영碩)	3,131,000
		손현욱(경영3)	2,460,000
		송재현(농생명공학4)	2,460,000
		유현재(경영2)	2,460,000
		윤준연(전기정보공학博)	3,469,500
		윤희성(경영2)	2,460,000
		이용욱(경영碩)	3,020,000
金貞植	金貞植(전자공학48－56) 대덕전자 회장	權五彬(전기정보공학2)	3,020,000
		姜鉉玟(전기정보공학4)	3,020,000
		金暉坤(전기정보공학2)	3,020,000
		金昌顯(전기정보공학3)	3,020,000
		辛炯杰(전기정보공학4)	3,020,000
		尹鐘勳(전기정보공학2)	3,020,000
		이승현(전기정보공학4)	3,020,000
		鄭秀珍(전기정보공학3)	3,020,000
		鄭有貞(전기정보공학3)	3,020,000
徐廷和	徐廷和(법학51－55) 서울대총동창회 회장	權珉暎(정책학碩)	3,131,000
池源哲	池源哲(축산73－77) 이지바이오시스템 회장	李基俊(식물동물생명碩)	3,829,000
趙弼濟	趙弼濟(조선항공46－50) 세양주택 회장	姜 龍(화학생물공학1)	3,189,000
		金載憲(건축1)	3,189,000
		梁娜瑛(생명과학3)	2,996,000
		崔鎭炫(경영1)	2,629,000
		崔暢洛(전기정보공학3)	3,020,000
		黃珊海(화학1)	3,165,000
羅公默	羅公默(상학56－61) 코오롱그룹 고문	羅英仁(철학4)	2,460,000
曺基浩·李英子	曺基浩(화학교육54－58) 기호물산 회장 부인 李英子(생물교육56－60) 여사	金한나(생물교육3)	2,500,000
		河憙垂(생물교육4)	2,500,000
具平會	故 具平會(정치47－51) 前E1 명예회장	高相政(정치외교1)	2,629,000
		姜秉完(경제3)	2,460,000
		孫光恩(자유전공3)	2,996,000
		沈伭利(국악3)	3,944,000
		李是優(경제1)	2,629,000
		趙顯九(치의학碩)	2,996,000
		崔彰仁(재료공학2)	3,020,000
李埈鎔	李埈鎔(경제56－60) 대림산업 명예회장	化景煥(심리4)	2,698,000
		궁찬영(화학생물공학3)	3,020,000
李埈鎔		김미소(건축3)	3,020,000
		金佑宰(지역시스템공학3)	3,020,000
		金賢鎭(의학1)	3,020,000
		裵誼眞(건축4)	3,020,000
		宋한빛(화학생물공학2)	3,020,000
		楊明俊(건축4)	3,020,000
		禹昌熙(바이오시스템소재2)	3,020,000
		尹俊수(건축2)	3,020,000
		이연제(지구환경과학1)	3,020,000
		李始恩(응용생물화학1)	3,020,000
		이준석(건설정환경공학3)	3,020,000
		李昶沅(건설환경공학2)	3,020,000
		許元宰(건설환경공학4)	3,020,000
德門	馬國哲(공업교육68－72) 한국열연 사장	金秀赫(기계항공공학1)	2,500,000
		김 옥(의학2)	2,500,000
成百詮	成百詮(토목공학52－56) 한국해외기술공사 대표	金珍鎬(건설환경공학4)	3,020,000
河相完	河相完(치의학64－70) 신흥치과의원 원장	金秀珉(치의학碩)	3,000,000
安 勳	故 安 勳(수의학53－57)	李東昱(수의학2)	1,857,000
朴浩田·金英姬	朴浩田(경영62－66) 삼덕 회장 부인 金英姬(작곡62－66)여사	姜準揮(동양화3)	3,679,000
		孔燦雄(물리천문4)	2,996,000
		金度勳(정치외교4)	2,460,000
		金泰均(경영3)	2,460,000
		朴民洙(교육4)	2,460,000
		朴帝昱(경영4)	2,460,000
		兪宣鎬(성악3)	3,944,000
		이준영(응용생물화학3)	2,996,000
		趙源俊(건설환경공학4)	3,020,000
		崔然成(아시아문명3)	2,460,000
趙慶一	趙慶一(약학64－68) 하나제약 회장	呂貞玟(제약5)	2,500,000
孫京植	孫京植(법학57－61) CJ그룹 회장	宋致憲(기계항공공학3)	3,020,000
		鄭衡埈(경제2)	2,460,000
張炳德	張炳德(화학교육53－57) 단일시스켐 회장	金珍芽(지리2)	2,500,000
金炳贊	金炳贊(의학53－60) 제주한라대학 이사장	文景煥(경제2)	2,460,000
金鍾憲	故 金鍾憲(경제55－59) 서해안문화연구소 회장	安修鉉(의학2)	3,094,000
斗山	朴容晟(경제59－65) 대한체육회 명예회장 朴容昡(의학62－68) 연강재단 이사장 朴容晩(경영73－78) 두산그룹 회장	郭城源(경영4)	2,460,000
		權純載(의학1)	5,074,000
		김기현(경영2)	2,460,000
		金東永(경영4)	2,460,000
		김병기(경영3)	2,460,000
		김은선(경영3)	2,460,000
		金廷翰(의학4)	5,340,000
		朴玟卿(의학碩)	5,340,000
		朴藝松(의학碩)	5,340,000
		梁湏豪(경영4)	2,460,000
		吳瑟起(경영3)	2,460,000
		林憲鍾(의학碩)	5,340,000
		張先杓(의학碩)	5,340,000
斗山		崔珉娥(의학碩)	5,340,000
		崔民佑(경영2)	2,460,000
		許盛畯(경영3)	2,460,000
洪禮杓	洪禮杓(치의학65－71) 홍예표치과의원 원장	金珉智(치의학碩)	3,500,000
金洛榮	金日煥(천문기상64－72) 대화 대표	金智元(국악2)	3,000,000
		金炯鉀(영어교육4)	3,000,000
		張敏姬(지구환경과학碩)	3,000,000
嚴秉潤	嚴秉潤(외교60－64) 유라코퍼레이션 회장	金圭男(언론정보4)	2,460,000
藥大	약대동창회	金建希(약학4)	2,500,000
		徐仁惠(약학5)	2,500,000
劉常夫	劉常夫(토목공학60－64) 포스코 고문	金世赫(독어교육2)	2,460,000
李世榮	李世榮(약학57－61) 삼익제약 회장	金亨俊(재료공학3)	3,020,000
全東龍	故 全東龍(수의학52－56) 前동화농산 대표	金아로미(지구환경과학2)	2,996,000
		朱雄基(독어교육2)	2,460,000
		池完圭(전기정보공학4)	3,020,000
		洪炅仙(디자인2)	3,679,000
河富烈	河富烈(경영74－78) 아섬 사장	李東俊(경영3)	2,000,000
李元珪	李元珪(농생물58－63) 前산림청 임업연구원 산림미생과장	청일철(농생명공학碩)	2,000,000
陽泉	故 金潤澤(경대원68－70) 양천장학회 이사장	李元炯(지구환경과학碩)	1,000,000
美大	미대동창회	金賢婀(디자인3)	1,000,000
		兪세리(디자인2)	1,000,000
		朱洛俊(동양화3)	2,000,000

※ 2015년 2월말 현재 특지 및 기금장학회는 총 1백35개이며, 이번 학기에는 73개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함.

결연장학금 수여 현황

출 연 자	수 혜 자	장 학 금
徐廷和(법학51－55)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남은정(화학교육3)	2,996,000
	박재성(화학생물공학碩)	3,855,000
	손원우(법학碩)	6,696,000
鄭八道(AIP 1기) 코리아랜드캄파니 회장	姜玹池(경제4)	4,260,000
	申周容(인문2)	1,800,000
禹仁性(기계공학58－62) 인터비즈시스템 회장	朴昭姸(화학생물공학碩)	3,189,000
黃彩皓(교육심리61－65) 비엠비 상임고문	李旼娥(불어교육3)	2,460,000
姜信主(사회교육51－55) 삼신 대표	李昌熙(사회교육2)	2,470,000
李仁浩(사학55입) KBS 이사장	高炅辰(서양사2)	2,467,000

Lovely Life
당신의 삶을 더 사랑스럽게!
Lovely Life는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LOTTE
DEPARTMENT STORE
가장 받고 싶은 선물
롯데상품권
LOTTE
GIFT CERTIFICATE
商品券
100000
100000
받는 분이
사랑받는 선물
법인 기업체 구매상담
서울 및 수도권 (02) 2118-6400~9, 6411~6420
·자세한 사용처는 롯데백화점 홈페이지(http://store.lotteshopping.com)
우측 상단 '상품권' 탭을 클릭하세요
LOTTE
롯데백화점 모델
김수현(Kim Soo Hyun)
NAVER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

(재)관악회 제122차 이사회

신임 감사 선임·전년도 결산 승인

재단법인 관악회(이사장 徐廷和)는 지난 2월 23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에뜨와르룸에서 제12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 임원 선임안과 2014년도 결산안이 상정됐다. 임기가 만료된 朴英俊감사의 후임으로 법무법인 중정 丁治榮(사법88-92)변호사를 선임했으며, 법무법인 세종 宋雄淳(법학71-75)대표변호사, 국제교류증진협회 姜大鉉(서양사학72-76)회장, 삼일회계법인 柳熙讚(경영80-84)전무를 신임 이사로 선임했다.

이어 2014년도 관악회 결산안에 대해 승인했다.

이날 徐廷和이사장, 孔大植상임이사, 李禮植·韓斗鎭·權永旲·李炯均·辛鉉雄·朴明潤·金秉順·李哲洙이사, 宋雄淳·姜大鉉·柳熙讚신임 이사, 丁治榮신임 감사, 朴承熙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제17회 관악대상 수상자 선정

참 여	鄭八道동문
협 력	尹大燮동문
영 광	金榮秀동문 朴枝香동문
해 외	裵相環동문

본회(회장 徐廷和)는 지난 2월 25일과 3월 2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관악대상 운영위원회 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17회 관악대상 수상자로 참여 부문에 코리아랜드캄파니 鄭八道(AIP 1기)회장, 협력 부문에 성보화학 尹大燮(농공학49-55)회장, 영광 부문에 인천아시아경기대회 金榮秀(법학60-64)조직위원장, 모교 朴枝香(서양사학71-75)중앙도서관장, 해외 부문에 인도네시아지부 裵相環(경제56-61)명예회장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3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가질 예정이다.

본회 徐廷和회장, 모교 成樂寅총장, 수상자 李容式동문 부부, 관악언론인회 裵仁俊회장

관악언론인회 제8대 회장에 金鎭國동문 선출

'서울대 언론인 대상'에 문화일보 李容式논설실장

관악언론인회(회장 裵仁俊)는 지난 2월 2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3회 정기총회 및 제12회 서울대 언론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본회 徐廷和회장, 관악언론인회 安秉勳·李炯均·文昌克명예회장, 裵仁俊회장, 모교 成樂寅총장, 鄭鍾旭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鄭夢準 前국회의원을 비롯해 1백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올해 서울대 언론인 대상은 문화일보 李容式(토목공학79-83) 논설실장이 수상했다. 李동문은 상패와 상금 1천만원을 받았다.

李동문은 1984년부터 30여 년간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세계일보, 문화일보에서 정치·경제부장, 편집국장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문화일보 논설실장을 맡아 영향력 있는 기명칼럼을 써왔다.

특히 1991년에는 '수서사건' 특종보도로 한국기자상, 대한언론인클럽 특별상을 받고 2002년 정치부장 때 대통령 선거 공정 보도로 한국기자협회 기획보도상을 수상하는 등 취재력과 치우치지 않는 기자정신을 평가받았다.

李동문은 수상소감에서 "이 상은 저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상"이라며 "이런 영광에 앞서 과연 제가 수상자로서 자격이 있나 두려운 생각이 앞선다"고 말했다. 〈수상 소감 요지 참조〉

裵仁俊회장(左)이 李容式동문에게 상패 수여

신임 金鎭國회장

이어진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중앙일보 金鎭國(정치78-85)대기자를 제8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金동문은 지난해 서울대 언론인 대상 수상자이며 본보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임 金鎭國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徐廷和총동창회장님과 成樂寅총장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시려 하는데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취임사 요지 참조〉

임기를 마무리한 裵仁俊회장은 그동안 도와준 동문들을 한 명 한 명 거명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 裵회장은 "지금 언론의 위기는 경영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언론인 역할의 위기이기도 하다"며 "서울대 출신 언론인들이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위해 함께 깨어 있고 함께 모색하기를 희망하고 이를 위해 관언회가 미래를 널리 내다보는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본회 徐廷和회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전방위적인 언론분열에 봉착하고 있고 국민을 설득해 통합해낼 정치 리더십도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복리를 위해 적극적 균형감각을 가지고 공정하게 언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세계화된 언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통일민주이상국가의 건설을 위해 신탁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관악언론인회 언론인들의 등불을 믿는다"고 말했다.

공식행사 뒤 모교 비바 중창단의 힘찬 축가로 식장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참석자들은 행사 후 기념품으로 본회에서 준비한 티스푼 세트를 받았다. (南)

李容式동문 수상 소감 〈요지〉

서울대는 각계에서 활약하는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듯이, 언론계에도 기라성 같은 모교 출신 인재들이 있습니다. 갓 언론계에 들어온 신참 기자부터 팀장, 부장, 국장, 논설위원, 주필, 편집인, 발행인, 대표에 이르기까지 언론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많은 동문 언론인 중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30여 년 동안 언론인으로서 '개근'한 일 외에 뭘 잘한 일이 있나 생각하니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앞으로 언론인으로서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서울대 언론인 대상'이라는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언론 환경이 급변하면서 언론계에도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언론계에도 모교 동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교는 국립대학으로서,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눈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는 말처럼, 동문 언론인들의 어깨에 언론계의 미래, 나아가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준 이 상은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동문 언론인들에게 그런 무거운 책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소속 언론사는 다르더라도 언론계 공통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관악언론인회가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金鎭國회장 취임사 〈요지〉

선배 몇 분이 며칠 전 제가 차기 회장을 맡아야겠다는 말씀을 하신 이후 잠을 못 잤습니다. 역대 회장님을 보십시오. 安秉勳 초대 회장님, 고인이 되신 南仲九회장님, 李炯均·文昌克·裵仁俊회장님. 우리 후배들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존재만으로 힘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방법이 없다. 이 선배님들을 모시고 몸으로 때우며 열심히 심부름하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저 혼자 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간사 모임을 더욱 활발히 하겠습니다. 徐廷和총동창회장님과 成樂寅총장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시려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동안 선배님들을 지켜봤습니다. 관언회 회장은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병입니다. 서울대 출신은 같이 모이는 것도 겁을 내고 눈치를 봅니다. 밥을 사면서도 같이 모이자고 연락하기가 어렵습니다. 모교 일은 동정 하나 보도하는 일에도 인색합니다. 공정성을 해칠까봐 다른 학교 출신보다 더 눈을 부릅뜹니다.

왜 모이는지 굳이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공정성에 결벽증까지 갖춘 서울대 출신 언론인이 바로 서야 언론이 바로 섭니다. 나라가 바로 섭니다. 좀 더 근원적인 고민을 함께 하고 의견도 나눕시다.

모교 역사 자료 수집에 동문 2백15명 기증

본회와 모교 기록관이 진행하고 있는 모교 역사연구기록관 건립 자료 수집에 지난 2월 1~28일 3명의 동문이 추가로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 1월 31일 이전에 기증한 동문 2백12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2백15명의 동문과 교직원이 소중한 자료를 보내왔다.

추가 기증자와 접수품은 다음과 같다.

▲李鍾虎(농화학52-56)동문 : 책 등사판〈사진〉 ▲朴殷浩(동물학63-67)동문 : 문리대 30주년 기념패, 1967년 졸업기념 넥타이 ▲洪性弼(공법89-95)동문 : 1989학년도 1학년 1학기 기초과정수강편람, 1989년 법과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팸플릿, 1989년 학생편람, 1982년 학사편람, 법대신문 2부 등

서울대학교 역사 자료를 찾습니다

1. 수집 대상 : 서울대학교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록물
   - 1)문서류 : 행정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류, 수업 관련 강의노트 및 과제물, 자치단체 회의록 등
   - 2)시청각물류 : 교내 고정 및 학내 행사 사진·영상자료, 각종 슬라이드, 강의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등
   - 3)간행물류 : 팸플릿, 리플릿, 소식지, 요람, 편람, 졸업앨범 등
   - 4)박물류 : 교표, 교기, 배지, 교복, 감사패, 현판, 액자, 직인, 기념품, 상장, 임명장, 개인애장품, 성적표 등
   - 5)기타 대학 역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원품, 모사품, 앨범 포함)
2. 수집 기간 : 2015년 12월 31일까지(마감기일 연기)
3. 수집 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4. 문 의 처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전 화 : 02-702-2233 팩스 : 02-703-0755 E-mail : webmaster@snua.or.kr
   - 주 소 : (151-015)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415호
   - 담당자 : 김진현 대리 핸드폰 : 010-7224-0755

   서울대학교 기록관
   - 전 화 : 02-880-8819 팩스 : 02-884-7149 E-mail : archives@snu.ac.kr
   - 주 소 : (151-015)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기록관 220동 446호
   - 담당자 : 김봉은 전문위원 핸드폰 : 010-3032-5913
5. 제공자 혜택 : 역사연구기록관에 제공자 성명을 표시하는 등 혜택 제공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서정화·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동창회 발전 위한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

서울대총동창회가 올해 모교 개학 120주년을 맞아 동문 간 유대를 강화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를 획기적으로 증대하고자 아래 사항에 대하여 동문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 회원 발굴 방안
- 유대 강화 방안
- 회비 증대 방안
- 상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무적 강화 방안 등

동창회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 아이디어가 있으신 동문은 아래 이메일이나 팩스로 고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동문의 아이디어는 회보에 게재할 예정이며,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 의 : 편집부 02)886-2219, 팩스 02)886-2218 / 이메일(snua1969@naver.com)

최우수 졸업생 등 신입 회원 환영

공대동창회

공과대학동창회(회장 金載學)는 지난 2월 25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최우수 졸업생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金載學회장을 비롯해 각 전공 교수들과 가족들이 참석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28명의 학생들을 축하하며 동창회 입회를 환영했다.

최우수 졸업생 가운데 공대 수석은 4.25를 받고 3년만에 조기 졸업하는 재료공학부 강준구 군이 차지했으며, 재료공학부 김소연, 에너지자원공학과 한희승, 조선해양공학과 정유원 양 등 여학생 3명이 포함돼 있다. 최우수 졸업생은 아래와 같다.

△건설환경공학부 : 유상혁(학점 3.77) 김택상(3.72) △기계항공공학부 백장엽(4.05) 김수용(4.02) 조병주(4.02) 백홍석(3.98) 배진현(3.98) 박종환(3.97) △재료공학부 : 강준구(4.25) 박현규(3.98) 김소연(3.97) △전기정보공학부 : 최동성(4.25) 정태훈(4.14) 박상현(4.07) 김주용(4.06) 이승원(4.02) △컴퓨터공학부 : 박재성(4.06) 심민섭(3.99) △화학생물공학부 : 하승균(4.18) 성기원(4.18) 문재완(4.15) 유기훈(4.12) △건축학과 : 고승훈(3.94) 조정빈(3.91) △산업공학과 : 김진석(4.08) △에너지자원공학과 : 한희승(4.12) △원자핵공학과 : 김해성(4.10) △조선해양공학과 : 정유원(3.70)

4월 11일 총회 준비
생활대동창회

생활과학대학동창회(회장 崔明珍)는 지난 2월 6~7일 서울 서초동 마리틴에서 전체이사회를 개최했다. 동창회는 각 기별 대표들의 전원 참석과 편의를 위해 이틀에 걸쳐 이사회를 열고 있다.

이사회에는 崔明珍회장, 禹敬子 前회장을 비롯해 6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올해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동창회는 4월 11일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를 열 계획이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정교육과, 가정관리학과,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동창회 주관 세미나를 5~11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본회 부회장 3명 추가 선임

朱鐵基·宋雄淳·吳秉熙동문

朱鐵基부회장

宋雄淳부회장

吳秉熙부회장

본회(회장 徐廷和)는 최근 제25대 부회장에 청와대 朱鐵基(서양사학73졸)외교안보수석비서관, 법무법인 세종 宋雄淳(법학71-75)대표변호사, 모교 병원 吳秉熙(의학71-77)원장을 추가로 선임했다.

朱부회장은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다자외교와 경제외교 분야의 전문가로 통한다. 외무고시 6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유럽공동체(EC) 대표부 공사, 주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 주모로코 대사,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주프랑스 대사 등을 역임했다.

宋부회장은 증권금융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한국증권법학회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금융규제개혁 자문위원,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吳부회장은 1987년부터 모교 의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모교 병원 기획조정실장·강남센터 초대원장 및 진료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외활동으로 대한심장학회 심부전연구회장·기초과학연구회장·혈관연구회장 등으로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쳐왔다. 〈南〉

봄에 꽃 피는 후배 사랑에 장학금 훈풍

80명에 장학금 1억9천6백만원

상대동창회

상과대학동창회(회장 成耆鶴)는 지난 2월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1학기 장학금 전달식 및 최우수졸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모교 김민희(경제4년)군 등 경제학부 40명과 박제욱(경영4년)군 등 경영학과 40명에게 장학금 1억9천6백80만원을 전달했으며, 학술연구비로 모교 경영대 및 경제학부에 각각 1천만원을 지급했다.

또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는 경제학부 성연진(학점 4.21)양과 경영학과 정재원(학점 4.24)군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이날 장학금은 成耆鶴회장을 비롯해 元赫喜(상학45-51)·李榮相(상학51-55)·金正銀(경제52-56)·李鍾衍(경제52-56)·沈晶求(경제53-57)동문 등 40여 회원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71명 학생에 1억4천만원 전달

농생대동창회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회장 李賢秀)는 지난 2월 25일 모교 관악캠퍼스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동창회 장학재단인 상록문화재단을 비롯해 서현장학금, 이순형장학금, 일성특지장학회(출연자 鄭潤煥동문) 등을 통해 학부생 및 대학원생 71명에게 장학금 1억4천만원을 전달했다.

李賢秀회장은 "장학금 사업을 시작했던 2010년에 비해 이자 수입이 반토막이 났음에도 장학금은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앞으로도 재원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는 5월 정기총회에서 매년 1백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멘토 역할을 해줄 동문 1백명을 모아 장학위원회를 정식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金康造동문 10년간 장학금 출연

대전·충남지부동창회

대전·충남지부동창회(회장 吳應準)는 지난 2월 13일 대전시 선화동 대림관광호텔에서 2015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창회 임원과 동문 및 학부모를 비롯해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대전·충남 출신의 모교 신입생 및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吳應準회장은 이날 김규상(보문고)군, 안세영(KAIST)군, 조규범(남대전고)군, 조상우(충남고)군, 황병욱(중앙고)군 등 총 5명에게 9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커다란 업적을 이룰 수 있는 학생으로 거듭나달라"고 당부했다.

동창회는 지난 2004년부터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동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금액을 학비로 전달해왔다. 특히 장학위원장을 맡은 金康造(약학64-68)부회장은 대전시 월평동에서 하나약국을 운영하며 지난 10년간 매일 첫 손님의 수입을 모아 동창회 장학금으로 기부, 동창회와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24명 장학생에 8천4백만원 지원

법대동창회

법과대학동창회(회장 金東建)는 지난 2월 27일 모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장학생 24명에게 8천4백83만원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 학기 대비 2천여 만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이번 장학금은 金性洙(법학49-53)·裵命仁(법학52-56)·李相赫(행정54-58)·宋榮壽(법학56-60)·尹世榮(행정56-61)·李載厚(법학58-62)·吳允德(행정61-65)·申明均(법학62-66)·趙健鎬(법학62-66)·崔慶元(법학63-67)·吳世彬(법학68-72)·柳元奎(법학71-75)·洪錫肇(법학71-75)·鄭成福(법학73-77)·朴永烈(법학75-79)·崔正烈(사법82-86)동문과 79학번 동기회(회장 石東炫) 등이 출연한 기금을 통해 마련됐다.

동문작품 지상전시회

卞 明 姬 作

〈작가약력〉

▲1985~1989년 모교 동양화과 졸업
▲1990~1996년 모교 대학원 졸업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예술철학전공 박사과정 수료
▲개인전 10회
▲다수의 기획전 참여, 崔 沖, 崔惟善, 崔惟吉 영정 모사제작(2014년)
▲작품소장처 : 미술은행, 강남구청, 홍천군청 외
▲現한국조형예술연구소 소장

充-새13-1Fullness-Bird13-1,
47×85cm, colored on silk, 2013

※ 작가 한마디 : "비단의 투명하게 속살이 보이는 듯한 매력. 오랜 시간 흐리게 쌓아올려 우려낸 깊고 그윽한 맛이 화면에 내면성을 더욱 끌어내고 있다. 여기에 화면의 은은히 배어나오는 여백미 공간은 여유롭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윽한 색, 墨. 동물 털을 이용한 생명성의 부드러운 붓에서 나오는 강한 필법. 바로 고도의 철학적 재료이다."

총회서 장학금 수여

함춘여자의사회

함춘여자의사회(회장 白賢旭)는 지난 2월 4일 모교 연건캠퍼스 의생명연구원 가든뷰에서 제43차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白賢旭회장, 朴仁淑국회의원, 모교 의대 朴重信 대외협력실장을 비롯해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신입회원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3명의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전임 의학역사문화원장인 핵의학과 鄭準基(의학71-77)교수는 '연건동 캠퍼스 산책'이란 주제로 의대 캠퍼스의 역사와 유적을 현재와 비교해 새로운 의미를 느끼게 해줬으며, 리노베이션한 시계탑과 역사박물관을 포함, 의학역사문화원을 다 함께 돌아봤다.

함춘여자의사회는 올해 멘토링 프로그램과 의료봉사 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공직계 등 분야별 조직 강화키로

약대동창회

약학대학동창회(회장 李慶秀)는 지난 2월 27일 서울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李禮植·李金器·李世榮·千文宇명예회장을 비롯해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동창회는 이날 올해 주요사업계획으로 공직계 동문 활성화 간담회(4월), 제약계 동문 네트워크 결성 심포지엄(5월), 법조계 동문 활성화 간담회(9월) 등의 조직 강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李慶秀회장(中)이 우수 졸업생인 정상민·김주연 양과 기념촬영을 했다.

한편 이날 지난해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공헌한 동문과 우수 졸업생에게 상패를 전달하며 축하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동창회장 표창 : 金玉蘭(약학55-59)·정행자(약학59-63)·崔秉宇(약학60-64)·金哲鎬(제약68-72)·許鏡和(약학74-78회)동문 ▲약대동창회장 표창 : 金一盛(약학60-64회)·白承元(약학61-65)·徐丙奇(약학62-66)·卞在奐(약학66-70)·박흔용(제약72졸)·金成鎬(제약79-83)·梁民烈(제약79-86)·鄭伊淑(약학82-86)·韓龍海(제약81-86)·張洪媛(제약83-87)·신은경(제약00-04)동문 ▲우수 졸업생 : 약학과 정상민, 제약학과 김주연 〈南〉

좌로부터 李種昕·金載英·朴健培·夫三煥동문, 앉은이 張完植동문

金載英회장 선임·동문상 수여

치대·치대원동창회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동창회(회장 朴健培)는 지난 2월 25일 모교 연건캠퍼스 치의학대학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32대 회장에 혜정치과의원 金載英(치의학71-77)원장을 선출했다.

신임 金회장은 "그동안 동창회가 성장하도록 틀을 쌓은 역대 회장단, 특히 朴健培회장의 수고에 감사한다"면서 "치과계의 회무경험을 살려 모교 발전과 동문들이 원하는 바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金회장은 모교에서 치의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제14회 자랑스러운 동문상 수상자로 모교 치의학과 張完植(경성치전40-45)명예교수, 자연보호중앙협의회 李種昕(치의학57-61)명예회장, 부삼환치과의원 夫三煥(치의학58-64)원장을 선정해 상패와 순금을 전달했다.

이날 회원들은 총무와 재무·기획·공보·학술·회원 등 각 위원회별 2015년 사업계획과 3억7천7백만원 규모의 수지예산을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했다.

동창회는 올해 회보 발간, 의료봉사 활동, 학술세미나 등의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鄭啓泳회장 선출

상대 19회 동기회

상대 19회 동기회(회장 崔鍾仁)는 최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16대 회장에 원일전선판매 鄭啓泳(상학61-66·관악회 이사)회장(사진)을 추대했다.

이날 모임에는 1백여 명의 동기 부부가 참석했으며, 8명의 동문으로 구성된 노블레스 앙상블 중창단의 공연 등을 즐기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모교서 총회 개최

FNP동창회

식품영양산업CEO과정동창회(회장 崔順泰)는 지난 2월 26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에서 崔順泰회장을 비롯해 모교 생활과학대학 余禎星학장·池根億·黃金澤교수 등 7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 겸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좌로부터 李慶秀·林都洙·崔英洙·韓相範동문

林都洙동문 등 4명에 대상 시상

AMP동창회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金鐘燮)는 지난 2월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신년교례회 및 제14회 AMP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孫京植명예회장, 金鐘燮회장을 비롯해 모교 경영대학 南益鉉학장, 본회 鄭八道(26기)부회장 등 1백6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朴聖姬(54기·본보 논설위원)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상식에서 보성파워텍 林都洙(20기)회장, 코스맥스 李慶秀(28기·약학66-70)대표, 크레텍책임 崔英洙(46기)대표, LG디스플레이 韓相範(68기)대표가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어 동창회에 새로 편입된 77기·78기가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참석자들은 모교 비바 중창단의 공연과 만찬을 즐기며 친목을 다졌다.

李弼雨회장 재추대

ACAD동창회

국가정책과정동창회(회장 李弼雨)는 지난 2월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徐廷權고문, 李弼雨회장을 비롯해 모교 행정대학원 金順殷교수 등 1백6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徐廷權고문을 비롯해 31명의 동문에게 공로패를, 李美玉수석부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 2014년도 결산·감사보고가 있었으며 지난해 10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李弼雨회장의 재추대 건에 대해 추인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李弼雨회장이 고급와인, 핸드백 등을 협찬했다.

文正旭회장 연임

AFB동창회

패션산업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文正旭)는 지난 2월 25일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팰리스호텔 두베홀에서 文正旭회장, 모교 생활과학대학 余禎星학장 등 1백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 文회장과 朴晩永수석부회장 체제의 제9대 동창회 집행부가 출범했으며 각 기수 회장 9명을 부회장에 임명했다. 〈邊〉

〈바로잡습니다〉

지난 2월 15일자(443호) 3면 魯仁煥동문 장학기금 쾌척 기사 중 '한국능률협회 부회장'은 오기이므로 바로잡습니다.

• 말하는 시계

남자가 아파트로 친구를 초대했다.
친구는 방안의 큰 솥뚜껑과 망치가 뭔지 물었다.
"아! 그건 말하는 시계야. 이따 새벽에 보여줄게."
둘이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친구가 말했다.
"아까 말하는 시계 좀 보여줘 봐!"
남자가 망치로 솥뚜껑을 시끄럽게 쳐댔다.
옆집에서 누군가 소리를 질렀다.
"야! 멍청아. 조용히 해! 지금 새벽 2시야. 두 시!"

• 억울합니다

어떤 남자가 자동차를 훔친 혐의로 경찰서에 잡혀왔다.
경찰이 그의 범죄 사실을 추궁했다.
"당신 뭐 땜에 남의 차를 훔친 거지?"
그러자 남자는 억울하다는 듯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다.
"난, 훔친 게 아닙니다.
묘지 앞에 세워져 있기에 주인이 죽은 줄 알았다고요!"
〈독자제보 환영〉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고성·속초·태백에 지역별 이사 선임"

영동지부동창회 李元種회장

(강릉원주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영동지부동창회는 지난 1월 정기총회에서 강릉원주대 식품영양학과 李元種(식품공학73-77)교수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지난 몇 년간 공동회장 체제로 운영돼온 동창회를 단독으로 이끌어가게 된 李회장에게 취임 소감과 포부를 들어봤다.

– 단독회장이 됐는데.

"그동안 총무로서 공동회장님들을 모시며 회원들과 연락하고 접촉하다 보니 회원들이 저에게 회장직을 맡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연락하고 모이는 데 힘쓰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 동창회 소개를.

"전체 3백여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만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태백을 아우르는 넓은 지역이라 아직 파악되지 않은 동문이 많습니다. 현재는 주로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1백여 명이 참여 중입니다. 동해, 삼척, 평창에 지역별 이사를 두고 있는데 앞으로 고성, 속초, 태백에서도 선임할 예정입니다."

– 활성화 방안은.

"지역 내에서 더 많은 동문들을 찾아 송년회와 신년하례회, 봄철 야외행사 등 정기 행사에 가족과 함께 참여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또 최근 들어선 모교 평창캠퍼스에 교수님과 연구원 동문들이 많아서 동창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 미국 노스다코타주립대에서 수학했는데.

"그곳 동창회에서 운영하는 고용지원 센터가 인상적이에요. 동창회가 동문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재학생과 졸업한 지 5년 미만의 학생들을 동문들과 연결해주고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 '농사짓는 교수'로 유명합니다.

"큰 규모는 아니고 20년 넘게 농가주택에 살면서 텃밭에 가족이 먹을 채소를 재배하고 토종닭을 기르는 정도입니다. 봄에는 이것저것 씨를 뿌려야 해서 바빠질 듯합니다."

서울 중앙고와 모교를 졸업한 李회장은 미국 노스다코타주립대에서 식품공학 석사·박사학위를 받고 위스콘신주립대 연구원과 네브래스카주립대 및 캐나다 서스캐처원주립대 교환교수를 지냈다. '거친 음식이 사람을 살린다'(왕의서재刊) 등의 저서를 통해 깨끗한 자연에서 얻은 채소와 산나물, 도정하지 않은 현미, 잡곡 등이 몸에 좋고 마음의 여유도 되찾아준다고 예찬한 '거친 음식 전도사'다. 모교 재학 시절인 1976년 국내 제1회 주조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양조학에도 밝다. 저서 '막걸리 기행'(랜덤하우스刊)에서는 전국 '막걸리 지도'를 완성했다. 한국식품과학회로부터 학술진보상을 수상했으며, 아내와 슬하에 미국 실리콘밸리 등지에서 근무하는 재원인 두 딸을 뒀다.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동문 특강·토론회 통해 정보 나눌 터"

제주지부동창회 李鉉東회장

(한마음병원 일반외과 과장)

제주지부동창회는 지난해 12월 정기총회에서 한마음병원 일반외과 李鉉東(의학77-83)과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3백8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제주지부동창회는 최근 동문 수첩을 발간하고 매년 지역사회를 위한 동문 기부활동을 펼치는 등 활기찬 행보를 보이고 있다. 李회장은 그동안 부회장을 지내며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 소감 한 말씀.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회장이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침체됐던 동창회를 梁佶炫 前회장님께서 크게 활성화시키셨는데 그에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큽니다. 전임 회장님께서 구성하신 임원들과 더불어 총무와 감사, 고문 몇 분을 새로이 위촉해 실속 있는 동창회를 구상 중입니다."

– 운영 계획은.

"연 4회 정도 정기 모임을 갖고 그 중 두 번 정도는 사회적, 학문적인 고견을 가진 동문 특강이나 연주회로 특별하게 꾸려볼까 합니다.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의 토론회도 생각 중이고요. 회식으로만 끝나는 모임과 달리 모교 동창회로서 품격을 높여보고자 합니다. 가을쯤엔 산행을 가려고 의견을 모으고 있어요."

– 동창회의 사회공헌 활동이 꾸준한데.

"연 1회 제주지역사회를 위한 기부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펼치는 단체 중 재정이 넉넉지 않은 곳을 다섯 군데 정도 선정해 도우려고 합니다."

– 타향인 제주에 정착한 계기는.

"원래 강원도가 고향입니다. 대학 진학 당시 가정 형편이 어려워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국비장학금을 받았어요. 제주에서 그 의무 기간을 보내게 됐고 살다 보니 제주가 너무 좋아 지금까지 있게 됐어요. 제주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궁금해 강연회나 토론회에도 나가서 공부하곤 하는데, 경제논리가 최우선되면서 환경과 토속문화가 훼손돼 가는 듯해 마음이 아픕니다. '환경과 문화가 보존되면서 마음까지 행복한 제주'는 너무 동화 같은 희망일까요?"

강원도 횡성 출신의 李회장은 강릉고와 모교를 졸업하고 충북대에서 의학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모교 병원 외과 레지던트를 거쳐 제주시 한라병원 진료부장, 한마음병원 진료부장과 병원장 등을 역임했다. 제주도 의사회 공보이사 및 부회장, 장기기증운동본부 제주지부 이사, 남북협력 제주도민 운동본부 이사 등으로 활동해왔다. 탁구를 즐기며, '제주의 진짜 속살' 같은 오름을 자주 찾는다. 의사들의 신춘문예인 한미수필문학상 장려상을 받기도 했다. 슬하에 2남1녀를 두고 있다. 〈秀〉

Korea Be Inspired
2015 대한민국 최우수축제
보배섬 진도
대한민국 민속문화 예술 특구
제37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만남이 있는 신비의 바다로
2015. 3. 20.(금) ~ 3. 23.(월) / 4일간
전남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일원
주최 | Jindo 진도군 주관 | (사)진도군관광진흥협의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화제의 동문

한국자폐인사랑협회 金容直회장

자폐인 권익 수호…법조봉사대상 수상
"사랑으로 돌보면 저마다 잘하는 일 보여"

2006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자신의 뜻을 표현하기 어려운 자폐성 장애인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는 국내 유일의 단체이다.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표 변호사 金容直(법학74-78)동문이 설립을 주도해 10년간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사회복지, 정신의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및 후원가, 자폐인의 부모들로 두루 구성됐다. 자폐를 가진 아들이 있다고 밝힌 가수 김태원씨 등 유명인도 활동 중이다.

金容直동문은 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와 소화장학재단, 아가페정양원, 행복나눔재단, 모교 어린이병원 후원회 등 10여개 사회공헌단체에서 감사와 이사를 맡고 있다. 그간의 헌신을 인정받아 최근 법조봉사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자폐성 장애인 30년간 돌봐

서울 종로 사무실에서 만난 金동문은 인터뷰에 앞서 "우리 동문들 모두 나름대로 봉사하며 살고 계실 텐데 제가 인터뷰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겸양을 보였다.

"자폐는 참 어려운 장애입니다. 개인 편차가 커서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1:1로 치료하려면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죠. 가장 힘든 건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들을 대변해주는 단체가 꼭 필요했습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자폐성 장애인은 1만5천명이고, 미등록 인원까지 포함하면 4만명으로 추산된다. 협회 이름의 '자폐인'은 '자폐아'뿐 아니라 성인까지 포괄하는 더 넓은 의미의 단어다. 협회는 자폐인과 그 가족의 권익 보호는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연대까지 아우르는 사업을 펼쳐왔다. 협회가 주관하고 매년 전국에서 1천명이 참가하는 사랑캠프와 세계 자폐인의 날(4월 2일) 행사는 자폐인들의 축제로 자리 잡았다.

행정고시(22회)와 사법고시(22회)를 합격한 金동문은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관련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자폐성 장애가 있는 장남을 돌보면서 그는 국내 자폐인 가족 1세대로서 제대로 된 자폐인 단체의 필요성을 느꼈다. 서울동부지원 부장판사직을 사임하고 4년여 노력 끝에 세운 것이 지금의 협회. 영화 '말아톤'이 흥행하면서 자폐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진 터였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金동문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제정의 추진에 나섰다. 추진연대 공동대표를 맡아 부모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법률 초안 작성과 수정 보완에 심혈을 기울이며 동분서주했다.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염전 노예' 사건도 기폭제가 됐다. 마침내 지난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올해 안으로 시행된다.

金동문은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우선하는 정책이 돼야 한다"며 특히 중증 장애인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교육과 직업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센터의 역할을 강조했다.

"헌법에서 근로는 권리이자 의무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회가 발달장애인을 그저 부양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요. 비장애인들도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더디더라도 꾸준한 훈련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일의 보람을 느낀다면, 이상행동도 방지되고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겁니다."

"사랑으로 집중해서 돌보면 자폐인도 저마다 잘하는 것이 보인다"는 그에게 맏아들에 대해 묻자 "흙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해서 도자기를 만들 때면 얼굴이 환해지고, 1백80cm의 훤칠한 키에 수영도 좋아한다"며 웃음지었다.

국선변호인으로도 활동

金동문은 2013년 헌법재판소로부터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을 받았다. 2013년 사법역사상 최초로 생중계된 대법원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으로 베트남 여성의 변론을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지내고 현재는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金동문의 얘기에는 응원을 보내준 고시 동기들을 비롯해 크고 작은 인연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은 이들의 이름이 끊임없이 언급됐다. 그는 "결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이라며 "어려울 때마다 은인과 천사들을 만나 모든 일이 가능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협회도 자리 잡힌 듯해 이번 임기까지만 회장을 맡기로 했어요. 자폐인은 자기 세계에 갇힌 게 아니라 단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 독특할 뿐이에요. 꾸준한 노력으로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장애입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기울여 주십시오." 〈秀〉

오슬로필 金弘博 호른 수석

화제의 동문

해외서 활동하는 한국인 유일 금관수석
음대 수석 졸업…런던심포니에도 도전장

프로 축구, 야구 등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해외 명문 구단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한다. 음악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악단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연주가들은 빈 필하모닉 등 세계적인 악단에 진출하기 위해 많은 도전을 한다.

그동안 첼로, 바이올린, 피아노 등에서 많은 한국 연주자들이 해외 명문 악단에 들어갔지만 금관악기 분야에서는 해외 진출 사례가 드물었다. 그러다 보니 관악기 분야에서는 좋은 연주자가 드물다는 사회적 통념까지 은연중에 자리하고 있다. 최근 노르웨이 오슬로 필하모닉 호른 수석에 오른 金弘博(기악00-04)동문의 소식이 값지고, 반가운 이유다.

한국인은 호른 같은 금관악기를 잘 다루지 못한다는 국제 음악계의 혹평을 깨는 쾌거로 음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金동문의 소속 기획사인 목프로덕션은 金동문을 "세계 메이저 오케스트라에서 수석으로 활동하는 유일한 한국 금관 연주자"로 소개했다.

고교시절 부천 필하모닉 참여

金동문은 지난해 5월 세계 각지에서 지원한 수십명의 경쟁자와 세 차례의 오디션, 2주에 걸친 시험,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해 지난 1월 최종 선발됐다. 현 소속인 스웨덴 왕립오페라의 요청으로 본격적인 합류는 8월부터다. 이후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종신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스웨덴에 거주하며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金동문은 최근 동창회보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유럽 최고의 오케스트라에서 일할 수 있게 돼 무척 영광"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부터 유럽에서까지 운 좋게도 정말로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나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교 金泳律교수님, 李熙哲 前서울시향 수석님, 부천시향 崔敬一선생님, 라도반 블라코빅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1879년 창단된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노르웨이 최초의 교향악단이다. 마리아 얀손스를 비롯해 앙드레 프레빈, 유카-페카 사라스테 등 거장들이 역대 상임 지휘자를 역임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남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 성악가를 꿈꿨다. 중학교 시절 우연히 누나 친구를 통해 처음 호른을 접한 그는 그 소리에 매료됐다. 金동문은 "호른의 부드러우면서도 따뜻한 음색에 반해 내 목소리가 아닌 호른으로 노래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예고에 진학해서는 방과후에도 매일 학교에 남아 밤 10시까지 친구들과 함께 연습할 만큼 합주의 재미에 푹 빠졌다. 그는 "금관이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학교 복도가 '리사이틀 공연장' 같았다"며 "악기와 악기가 만나서 또 다른 소리를 낸다는 것이 정말 신기해 오케스트라 악보를 꺼내 밤새 연습하고 시청각실에서 몰래 잠들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올 여름 결혼…오슬로서 생활

그는 고교 때 대학 주최 콩쿠르에 두루 입상했고, 3학년 때는 부천 필하모닉의 말러 교향곡 전곡 시리즈에 객원 연주자로 참가할 만큼 '겁 없는 소년'이었다. 金동문은 1999~2003년 진행된 말러 교향곡 시리즈 연주에 참여하면서 고교와 대학 시절을 보냈다.

모교 음대를 수석 졸업 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에서 공부하던 중 2007년 지휘자 鄭明勳씨의 러브콜을 받고 서울시향에 합류했다. 4년간 활동 후 오스트리아로 건너가 석사 과정을 마쳤고, 2012년 5월 스웨덴 왕립오페라 제2수석으로 발탁됐다. 그해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 금관·타악 콩쿠르에서도 대상을 차지했다.

지금은 스웨덴과 노르웨이, 독일, 영국을 오가며 활동한다. 클래식 본고장 유럽에서 좋은 연주자들과 한 무대에 서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긴 타지 생활은 때로는 그를 지치게도 한다.

"틈이 나면 주변 공원을 산책하려고 노력합니다. 따뜻한 여름에는 산을 오르는 것도 좋아하고요. 올 여름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외로운 타지 생활도 곧 졸업할 것 같네요."

金동문은 현재 런던심포니 수석 오디션에도 합격해 트라이얼(시범) 기간 중에 있다.

"욕심내지 않고 주어진 기회들에 충실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저로 인해 사람들이 호른의 따뜻한 음색의 매력을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또 유럽에서의 음악생활을 통해 배우고 느낀 것들을 고국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하기에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할 생각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南〉

SNUH 분당서울대학교병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41230-중-66874호
세계의료의
"표준"을 선도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병원이 되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www.snubh.org 1588 3369

아름다운 기업-금호아시아나
시작합니다 특별한 뉴욕 여행
ASIANA 380
Special Edition
뉴욕 운항
아시아나항공
A STAR ALLIANCE MEMBER

"재단 설립 반세기 맞아 세계적 기관으로 발돋움 목표"

동문을 찾아서

한국과학창의재단 金昇煥 이사장

포항공대 물리학과 金昇煥(물리77-81) 교수가 지난해 말 한국과학창의재단 제24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문화 창달과 창의적 인재 육성을 전담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관이다. 1967년 과학기술후원회로 출발해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한국과학문화재단 등으로 활동해오다 2008년 지금의 명칭으로 확대, 개편됐다. 金동문은 평소 신문 칼럼과 학회 활동 등을 통해 '과학의 대중화'에 앞장서왔던 과학자로 공개 모집 과정을 거쳐 재단의 수장을 맡았다. 지난 2월 5일 서울 삼성동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金동문을 만나 계획과 포부를 들어봤다.

대 담 : 李先敏(조선일보 여론독자부장)논설위원

• 金이사장은

1959년 부산 출신으로 모교 졸업 후 1987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코넬대와 프린스턴 고등연구소를 거쳐 1990년부터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대외 활동으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수석전문위원, 한국뇌연구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올해 한국물리학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현재 아시아태평양 물리학연합회장,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 소장으로 국제과학기술계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복잡계 및 뇌과학 분야의 권위자로 과학문화 대중화 활동도 꾸준히 펼쳐서 2013년에는 한국과학기자협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과학자상'을 수상했다.

뇌과학 분야 권위자로 과학 대중화에 앞장
"창조경제 구현 위해 '메이커 문화' 확산"

– 50년 가까이 된 기관인데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기관 소개를 해 주시죠.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기관이라고 할까요? 정부 기관 중에 창의란 단어가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국민의 창의성과 상상력이 발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융합·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1967년 발족된 과학기술후원회가 모태죠. 먹고살기 힘든 시절에 '과학문화'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은 매우 혁신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 후 48년이 지나 우리나라의 국력과 과학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지금, 우리나라 과학문화 수준도 그에 맞게 성장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문화는 정부나 특정기관의 주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의 협업을 통해 조성된다고 믿어요. 재단이 과학정책, 교육, 언론 등 과학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주체들과 긴 숨으로 협업해 나간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과학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2018년도부터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이 도입됩니다. 과학·수학 교과 과정 개편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과 개편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교육부에서 고시가 됐고요. 우리는 그 틀 안에서 각론에 해당하는 과학·수학 교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강화 방안으로 문·이과 구분 없이 누구나 공통으로 들어야 하는 고등학교 과학 과목인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이 신설됩니다. 교육부와 함께 8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미국이 최근 '차세대 과학교육 표준'을 발표했죠. 이를 만들기 위해 수백 명의 과학자와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몇 년에 걸쳐 참여했다고 합니다. 우리 재단에서도 문·이과 통합과학 교과를 만드는 한편, 한국인이면 누구나 가져야 할 과학적 소양은 무엇이 돼야 하며, 미래 세계는 어떻게 변하고, 한국은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큰 틀에서 중장기적으로 연구하려고 합니다."

– 과학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주류 과학기술자들이 대중과의 소통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기관의 모델이기도 한 미국과학진흥회(AAAS)에서 '사이언스'라는 세계적 과학 학술지를 만들어 내고 있죠.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내부에 있거나 기관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잡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이 대중들과 소통하는 데 적극적인 분위기죠.

반면 '우리는 경제 규모만큼 과학문화 수준이 올라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요. 한국도 영화 '인터스텔라'를 많은 분들이 보기는 했지만, 아직 그런 영화를 만들어 낼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죠. 과학기술자들이 사회의 여러 분야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업하며 네트워크가 형성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 저도 '인터스텔라'를 봤는데 과학적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궁금하더군요. 한국인들의 과학적 소양이 어느 정도인지 지표가 있나요.

"미국 국가과학재단(NSF)에 조사 자료가 있어서 우리도 똑같이 가져와 조사를 합니다. 과학 관심도를 측정하는 질문에 미국이 65점(50점 기준), 우리가 45점 수준입니다. 과학 이해도 조사에서는 더 떨어지고요. 미국이 가장 높고 유럽 선진국들이 그 다음 정도 됩니다.

우리 국민의 과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유럽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미국은 'DIY(Do It Yourself)'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직접 자동차도 고치고요. USA투데이의 통계를 보면 미국인들 57%가 자기 스스로 메이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도 나오는 거죠. 우리처럼 획일적인 아파트 공간에 살며 '일, 일, 일' 하는 문화에서 스스로 뭔가를 창작하기가 쉽지 않죠.

'메이커 문화'가 현 정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겁니다. 창작활동이 개인의 취미생활 영역을 넘어 첨단기술과 결합해 제품화될 수 있고 소셜펀딩 같은 새로운 펀딩 시스템이 결합되면 사업화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곳곳에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다른 창작자들과 연결시키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이사장님의 그동안 활동을 보면 연구뿐 아니라 과학의 사회적 역할에 관심이 많은 듯 합니다.

"이론물리학이 제 전공인데, 물리학을 공부하면서도 항상 새로운 분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뇌를 연구하게 됐죠. 지식의 경계가 있다면 그 안쪽에 머물기보다는 항상 경계를 향해 나아가기를 좋아해요. 과학자로서 세상과 사회에 대한 관심도 있었죠. 그래서 신문 등에 기고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또 아·태 이론물리센터에서 코디네이터, 사무총장, 소장으로 11년간 활동하면서 과학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죠. 가족과학축제도 10년간 열었고, 과학자들이 소설가, 만화가, 영화감독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워크숍 프로그램도 해왔죠."

– 우리나라에서 언제쯤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본과 비교하면 '19대 0'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간격을 좁히기가 쉽지 않겠죠.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일본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 간격을 단기간에 줄이긴 어렵겠지만 20~30년 줄이는 건 어떻게 젊은 과학자들을 양성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봐요. 일본은 연구자가 한 주제를 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고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 있어요. 나중에 어떤 연구가 빛이 날지 모르는 게 기초과학인데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를 하다보면 어디선가 터지는 거죠. 젊은 과학자들이 흥미 있는 분야를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한 지원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도 기초과학연구원이 만들어져서 세계 수준의 연구를 지원하는 체계가 갖춰지고 있으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면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리라 봅니다. 보통 물리 분야는 젊을 때 상을 많이 받고, 투자대비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편입니다."

– 마지막으로 3년 임기 동안 '이건 꼭 이뤄놓겠다' 하는 게 있다면.

"2년 후면 재단 설립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제 세계적 수준의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들의 과학적 소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역할에 충실하면서, 주류 과학기술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창작 문화의 불길을 당겨주며, 과학교육의 중장기 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리·사진= 金南柱기자〉

행복잇는 도시철도
HUmetro
HUmetro
'안전'으로
'행복'을 이어갑니다
작은 일상이 모여 삶의 모습이 되듯
휴메트로의 일상은 시민과 함께 행복한 도시철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안전한 휴메트로, 행복한 시민' 휴메트로를 타면 행복이 밀려옵니다.
안전·편리·품격의 선진 도시철도
부산교통공사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쌍용자동차
My 1st SUV
다 른 것 은 전 부
시 시 해 져 버 렸 다
티 볼 리 를 본 순 간 부 터
TIVOLI 탄생
시선을 사로잡는 감각적 어반 다이나믹 스타일과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는 여유롭고 스마트한 스페이스,
아무나 따라올 수 없는 견고한 안전 시스템까지-
그래서 난, 첫차부터 엣지있게 TIVOLI
TIVOLI 엣지 포인트3
완벽한 안전을 구현한 세이프티 엣지
동급최다, 최초 7에어백
71.4% 고장력 강판 적용
공간을 극대화한 스페이스 엣지
동급최대 적재공간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스타일 엣지
6컬러 클러스터
스포티 D컷 스티어링 휠
TIVOLI
구입문의 및 고객센터 &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080-500-5582 www.smotor.com 참조
* 2WD 자동 6단 : 복합 12.0km/ℓ [도심주행 10.7km/ℓ, 고속도로 14.0km/ℓ] 배기량 : 1,597cc | 공차중량 : 1,300kg | CO2 배출량 : 146g/km | 3등급 수동 6단 : 복합 12.3km/ℓ [도심주행 11.3km/ℓ, 고속도로 13.8km/ℓ] 배기량 : 1,597cc | 공차중량 : 1,270kg | CO2 배출량 : 141g/km | 3등급

"레이저 마킹기 전문기업" (주)일우인터내셔날

30여년간 산업용 인쇄 시스템 분야의 solution provider로서 입지를 다져온 ㈜일우인터내셔날에서 레이저마킹기 가격이 부담스러워 구매를 망설이셨던 고객을 위해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각방식, 잉크젯 방식, 라벨 방식을 사용해 오시면서 소모품 등 유지관리비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저렴한 가격에 레이저마킹기 구매를 적극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상보증기간을 고객 요구에 따라 2-5년으로 연장하여 사후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일우 파이버레이저 마킹기 적용 분야
자동차 전장품, 전자부품, 플라스틱 사출품, 의료장비, 귀금속류, 실리콘 웨이퍼, 컴퓨터부품, 시계, 안경, 예술품 장식 등.

*** 이익이 나면 모교 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사회에 기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ILWOO INT'L CO., LTD.
www.ilwooin.co.kr

대표이사 우 진 태(원자핵공학과 71학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33-7 금강펜테리움 IT타워 A-311
TEL : 031-608-2451(代) / 070-4420-2141(直)

대명위드원
결혼정보 & 웨딩컨설팅

결혼! 참 잘했다

대 명 그 룹	**30여년 고객서비스 역량 구축** 대한민국 레저 No.1 대명리조트의 회원관리 역량 기반 국내 유일 대기업 브랜드/서비스 품질보증
결 혼 정 보	**20여년 매칭시스템 운용** 대한민국 대표 성혼의 달인/중매 특허 보유 2:1 맞춤형 밀착서비스
웨딩컨설팅	**10여년 웨딩컨설팅 설계** 셀프웨딩부터 동행서비스까지 맞춤형 상품 대기업 계열사/제휴 인프라 연계 상품

대한민국 대표리조트기업 대명그룹 계열사
대명위드원
결혼정보 & 웨딩컨설팅

결 혼 정 보 1588-3883
웨딩컨설팅 02)2017-7500

대명레저산업(2014 현재 대명리조트 국내 리조트 1위, 오션월드 세계 워터파크 4위) 대명홀딩스 | 대명건설 | 대명엔터프라이즈 | 대명코퍼레이션 | 대명라이프웨이 | 대명복지재단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 서울-서초-국내-08-0013

成樂寅총장 식사 〈요지〉

善意志의 실천으로 다가올 세상의 창조적 주역이 될 졸업생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서울대에서 연마한 지성과 덕성은 그 자체로서 매우 소중하고 탁월한 것이지만, 이러한 능력이 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善意志(guter Will)'의 실천이 전제돼야 합니다.

훌륭한 인재는 지성과 함께 공공성으로 무장된 따뜻한 가슴을 겸비한 '선한 인재'입니다. 여러분은 후배들에게 바로 그러한 '선한 인재'의 모범을 앞장서서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학에서 탐구하고 깨달은 지식과 가치는 현실에서 실천돼야 하며, 여러분 스스로는 그러한 기회를 직접 개척하고 찾아 나서야 합니다. 국내외의 문제를 근본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성찰하면서 그동안 연마한 역량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은 현대사회에 만연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먼 곳으로부터 물결이 밀려오고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배를 띄울 때입니다. 돛을 높이 올려 푸른 바람을 한껏 품으십시오. 서울대는 우리의 자랑이요 보배이며 세계의 선도적 학문연구공동체인 '을미정양호'의 힘찬 출항을 축하하며, 또한 멋지고 보람 가득한 항해를 축원합니다.

徐廷和동창회장 축사 〈요지〉

모든 현재는 곧 미래와 연결돼 있다지만 이 자리만큼 모교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눈에 보일 정도로 선명하게 떠오르는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가슴이 벅찹니다.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선배들이 해왔던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당면한 어떤 난관도 극복해 개인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과 발전의 비전을 사회에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음을 스스로 확인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처럼 최고의 인재들이 환란을 이겨나갈 수 없다면 누가 그것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새 회원이 되실 서울대총동창회는 35만 서울대인의 집결체로서 후배들을 돕고 모교의 발전을 도모해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교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동문 네트워크를 구축해 동문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 활동하든지 동창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집단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욱 훌륭한 인맥이 필요합니다. 동문들의 모임인 총동창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또 동창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후배들을 위해 또 모교를 위해 함께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李奇衡인터파크 대표 축사 〈요지〉

이 세상에는 다양한 길들이 존재합니다. 졸업을 하면서 마음에 쏙 드는 길을 찾지 못했다고 괴로워하거나 지금 결정된 길이 열등하다고 의기소침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지금 꿈에 그리던 길을 걷고 있다고 자만하지도 마십시오. 길을 걷다 보면 언젠가는 이 길이 맞나 하는 의심이 여러분을 세차게 흔들 때가 옵니다. 그 때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을 더 끌어안고 애정을 한 번 더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길이라도 그 속에 인생의 모든 참맛을 느낄 수 있는 도전과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대담한 도전이 늘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서 주인의식은 마법처럼 작동합니다. 내 것처럼 생각하면 내 것이 됩니다. 조금 더 이타적으로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앞으로 중요한 순간에 기대하지 않았던 큰 도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길에서 좋은 꿈 많이 꾸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69회 전기 학위수여식…4천8백48명 배출

본회서 졸업생 전원에게 책 '中庸' 선물

모교 소식

모교(총장 成樂寅)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제69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모교 成樂寅총장, 金鍾瑞교육부총장, 李愚日연구부총장, 柳根培기획부총장 등 보직교수를 비롯해 본회 徐廷和회장, 학부모 등 1만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金秉文교무처장의 학사보고에 이어 박사 5백92명, 석사 1천7백14명, 학사 2천5백42명 등 총 4천8백48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成樂寅총장은 식사를 통해 "여러분이 사회로부터 각별한 기대와 사랑을 받을수록 공동체를 위해 한층 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며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포용할 때 그동안 모교에서 쌓아온 지성과 덕성은 더욱 빛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회 徐廷和회장은 축사에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을 받은 최고의 인재들이며 여러분들이 받은 학문적, 인격적 훈련은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격려한 뒤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새로운 지식과 사상을 개척해 낼 수 있는 창조적 지성으로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개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내 최초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인터파크를 설립한 李奇衡(천문82-87)대표가 특별 연사로 초청돼 기업을 성공시키기까지의 진솔한 경험담과 함께 졸업생들에게 성공을 위한 특질로 '대담한 도전', '주인의식', '이타심'을 강조하며 축사했다. 〈식사·축사 요지 참조〉

이날 청년 창업자인 金度眞(경영학과10입)양이 졸업생 대표로 답사했다. 지난해 IT기업 '어떤 사람들'을 공동 창업하고 학업과 일을 병행해온 金양은 "하루하루 치열한 시간을 보내는 중"이라며 "성공한 기업가로의 직행 티켓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모교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노력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기회를 가졌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날 식전 행사에서 기악과 金泳律(기악76-80)교수가 지휘하는 'SNU WIND 앙상블'이 'Hound of spring' 등을 연주해 청중을 즐겁게 했으며, 모교 음악대학 남성중창단이 '그대는 나의 모든 것'을 열창해 축하의 분위기를 돋웠다.

한편 본회(회장 徐廷和)는 졸업생 전원에게 모교 중어중문학과 金學主(중문52-56)명예교수가 역주한 도서 '中庸'을 선물했다.

각 단과대학별 총장상과 총동창회장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인문대 : 이채린－고재필 **▲사회대** : 성연진－권혁수 **▲자연대** : 송지영－손아현 **▲간호대** : 왕혜령－박소미 **▲경영대** : 최장원－이준석 **▲공대** : 최동성－하승균 **▲농생대** : 김석환－강다은 **▲미대** : 원대한－김유정 **▲법대** : 성지원－양공종 **▲사대** : 김석환－박철규 **▲생활대** : 박해은－염정아 **▲수의대** : 이가은－김규명 **▲약대** : 유은지－이화정 **▲음대** : 김보영－왕정은 **▲의대** : 박정환－김연수 **▲자유전공** : 정근우－김민경 **▲치대원** : 김민규－김소미 **▲의대원** : 이나경－이창원 **▲법대원** : 원혜수－정경수 〈秀〉

단과대학(원)별 회원현황

구 분	2월 졸업	총 회원
인문대학	193	12,329
사회과학대학	323	16,694
자연과학대학	207	12,247
간호대학	79	3,806
경영대학	143	7,925
공과대학	583	47,075
농업생명대학	212	22,384
문리과대학	–	9,731
미술대학	71	5,808
법과대학	64	17,287
사범대학	223	27,493
상과대학	–	6,723
생활과학대학	93	4,677
수의과대학	52	2,513
약학대학	58	6,438
음악대학	95	8,255
의과대학	88	11,896
치과대학	–	6,050
자유전공학부	58	144
대학원	1,602	102,845
경영대학원	–	701
교육대학원	–	653
국제대학원	70	1,084
보건대학원	46	3,777
사법대학원	–	508
신문대학원	–	264
행정대학원	67	5,188
환경대학원	59	3,009
치의학대학원	85	611
의학대학원	65	190
융합과학대학원	32	206
경영전문대학원	152	1,004
법학전문대학원	128	539
소계	4,848	350,054
준회원	–	13,338
(특별과정)	822	28,203
총계	5,670	391,595

權泰檍교수 등 24명 퇴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지난 2월 27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는 成樂寅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및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 24명의 정년·명예퇴임식이 열렸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權泰檍(국사학)교수, 申正鉉(영문학)교수, 閔庚煥(심리학)교수, 李俊求(경제학)교수, 李之舜(경제학)교수, 洪斗承(사회학)교수, Sven Erland Olsson Hort(사회복지학)교수, 金 冠(화학)교수, 金敬眞(생명과학)교수, 李晙圭(물리천문)교수, 金錦順(간호학)교수, 姜信榮(기계항공)교수, Robert Ian Mckay(컴퓨터공학)교수, 朴承禹(조경·지역시스템공학)교수, 鄭哲秀(체육교육)교수, 玉先花(아동가족학)교수, 申相久(의학)교수, 尹汝奎(의학)교수, 李孝錫(의학)교수, 崔炳寅(의학)교수, 河星煥(의학)교수, 吳然天(행정학)교수, 金榮珍(경영학)교수, 權五乘(법학)교수 〈邊〉

2015학년도 입학식…신입생 총 6천4백66명

成총장 "약자에 귀 기울이는 지식인 되라"

모교는 지난 3월 2일 오전 11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趙完圭·鮮于仲皓·李基俊 前 총장과 成樂寅총장, 朴容昡이사장과 보직교수를 비롯해 태광사 李龍熙회장, 두성테크 梁杜錫회장, 학부모 등 1만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다.

金秉文교무처장은 학사보고를 통해 학부생 3천3백66명, 석·박사 3천1백명 등 올해 6천4백66명의 신입생이 입학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서현(정치외교15입)양이 신입생을 대표해 "모교 학생으로서 긍지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선서했다.

成樂寅총장은 식사에서 '선한 인재상'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가 모교에 요구하는 것은 지식과 스펙만을 갖춘 지식기술자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한 다음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타인을 배려하는 진정한 지식인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모교 소비자아동학부 金蘭都(사법82-86)교수가 축사를 했다. 金교수는 "스펙이 아닌 지성의 성장을 위해, 좋은 직업이 아니라 조국의 미래를 위해 혼신을 다해 공부하라"며 "나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나가야 할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이타정신을 이 교정에서 배워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사·축사 요지 참조〉

한편 올해도 다양한 신입생이 눈길을 끈 가운데 자폐 2급의 발달장애를 딛고 각고의 노력 끝에 음대에 합격한 배성연(기악과)군을 비롯해 맹학교를 졸업한 시각장애 1급 강민영(교육학과)양, 지체장애 2급 조소연(수의예과)양, 모교 의대에 재학 중인 누나의 뒤를 이어 탈북민 출신의 김혁진(가명·기계항공공학부)군 등이 당당히 모교 입학의 기쁨을 누리며 화제가 됐다.

成樂寅총장 식사 〈요지〉

여러분들의 서울대 입학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그 목표의 실현에 필요한 역량을 가꿔나가며,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 노력을 통해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대학생활은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와는 사뭇 다릅니다. 대학은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내고 이에 대한 해답을 열정적으로 탐구하는 곳입니다. 남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길을 모색하고 개척해야 합니다.

서울대라는 이름이 갖는 무게와 사회적 책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혼자서 외로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진리와 정의의 세계로 여러분을 이끌 스승과 동료, 선배와 후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SNU 선한 사람들의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여러분은 개인과 사회, 자신감과 겸손함, 권리와 의무를 조화롭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와 소통,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길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등과 화해를 거치면서 두터운 신의가 쌓이고 평생을 함께 할 동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여러분은 이곳 관악에서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서울대 학생으로서 긍지를 마음껏 펼치십시오. 먼 훗날 뒤돌아보았을 때 후회가 남지 않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사랑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십시오. 서울대의 모든 구성원들은 신입생 여러분이 지성과 품성을 겸비한 '선한 인재'로 성장하면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金蘭都교수 축사 〈요지〉

저는 여러분에게 희망을 겁니다. 단군 이래 최고의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우리 젊은 세대가 교착상태에 빠진 나라에 새로운 모멘텀을 부여할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해주기를 간곡히 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다시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입니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선함'을 가슴에 품고 개인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을 때, 인류와 나라와 학교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성장이 서로 접점을 찾아 만개할 수 있습니다.

에베레스트산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이유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히말라야산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나라를, 우리 학교를 히말라야산맥으로 함께 키워나갑시다. 바다 위에서 혼자 높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야 할 사회적 약자들과 우리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는, 선하고 책임 있는 인재로 성장해야 합니다. 당신이 여기 앉아 있기 위해 탈락시킨 누군가를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승리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채무자입니다. 선함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우리 공동체를 히말라야산맥처럼 만들고 나서, 자신이 한 뼘만 더 성장할 수 있다면, 그때 당신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돼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 학생 10년 새 3배 이상 증가

중국·미국 출신 박사과정 가장 많아

모교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 수가 10년 사이에 3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학생들의 출신국가도 10년 전과 비교해 훨씬 다양해졌다.

모교 본부측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외국인 학생수는 2천1백66명으로 2004년(6백39명)과 비교해 3.4배가 늘었다. 이 수치는 대학원생은 포함하고 재외동포는 뺀 것이다.

학위별로는 박사과정 외국인 학생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2004년 1백41명이었던 외국인 박사과정 재학생은 지난해 7백7명으로 5배가 늘었다. 같은 기간 석사과정은 3백1명에서 1천1백43명으로 3.8배, 학사과정은 1백97명에서 3백16명으로 1.6배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모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의 국적은 중국이 7백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2백61명) △일본·베트남·몽골(각각 92명) △캐나다(83명) △인도(65명)가 뒤를 이었다. 2004년에는 한 명도 없던 프랑스·이탈리아·이집트·스웨덴·요르단 출신 학생도 있다.

수의대 학장에 金載弘교수 임명

지난 3월 1일 모교 수의대 학장에 수의학과 金載弘(수의학74-78)교수(사진)를 임명했다.

신임 金학장은 모교 수의학과 졸업 후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2007년에 모교 교수로 부임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연구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수의학회 이사장, 대한수의사회 부회장, 수의정책포럼 상임대표 등을 맡고 있다.

동경대·파리7대학과 교류 확대 논의

모교는 최근 동경대 및 파리7대학과 각각 상호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논의했다.

成樂寅총장은 지난 2월 15~17일 일본 동경대를 방문해 하마다 준이치 총장과 고노카미 마코토 차기 총장을 각각 접견하고 전략적 협력관계 확대 및 공동 하계 프로그램 실시, 공동 학술 컨퍼런스 개최, 공동 학위 및 학점교류 확대 실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한편 지난 2월 9일에는 프랑스 파리 7대학 크리스틴 클레리치(Christine CLERICI)총장과 관계자가 모교를 방문해 양교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成총장은 크리스틴 클레리치 총장과 접견을 통해 인문학, 자연과학, 한국학 등의 공동연구에 대한 논의 및 모교 학생들이 유럽 현지에서 수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SNU in Europe'을 추진키로 협의했다.

기록관 관장에 金泰雄교수 임명

지난 3월 1일 모교 기록관 관장에 역사교육과 金泰雄(역사교육80-84)교수(사진)를 임명했다. 신임 金관장은 모교를 졸업한 뒤 대학원 국사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정부기록보존소 학예연구관, 군산대 조교수를 거쳐 지난 2004년에 모교 교수로 부임했다. 〈秀〉

발전공로상 및 사회봉사상 후보자를 추천해 주세요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제8회 '서울대학교 발전공로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모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 또는 단체를 4월 3일까지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국민과 사회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고 다른 교원들에게 모범을 보인 전임교원(또는 교원단체)을 발굴해 제5회 '서울대학교 사회봉사상'을 시상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사회봉사 활동이 뛰어나고, 봉사단을 조직 및 운영하거나 사회적 배려 계층에 남다른 열정을 보임으로써 학생들과 동료 교원들에게 봉사활동의 귀감이 될 만한 모교 전임교원 또는 교원단체를 4월 10일까지 천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교 기획처 대외협력팀(전화 : 880-9712, 팩스 875-9712)으로 후보 추천서, 추천사유, 공적사항 등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모교 발전기금 장학금 수여

재학생 6백여 명에 21억원 전달

모교 발전기금(이사장 成樂寅)은 지난 2월 25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2015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 9회째를 맞는 이날 행사에는 역대 최다인 기부자 및 가족 등 60여 명이 참석해 장학생들을 격려하고 기부자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발전기금은 현재 2백여 개의 장학기금을 운영해 재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총 6백여 명의 학생에게 약 21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모교 成樂寅총장은 인사말에서 "기부자 분들의 귀한 뜻으로 여기 모인 학생들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기부자 대표로 현대학원 閔季植(조선항공학61-65)이사장이 격려사를 했으며, 장학생 대표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表슬비(정치외교09-14)학생이 답사했다.

모교는 成총장 취임 이후 '선한 인재 장학금'을 마련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등록금과 함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디자인캠프문박 金正湜회장

건축학과에 기금 10억원 쾌척

金正湜회장, 成樂寅총장

지난 1월 30일 디자인캠프문박(dmp) 회장이자 목천김정식문화재단 이사장인 金正湜(건축54-58)동문이 모교 공과대학 건축학과에 10억원을 쾌척했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金회장과 成樂寅총장, 柳根培기획부총장, 李哲洙기획처장, 공과대학 李建雨학장, 디자인캠프문박 文震昊(건축80-84)대표가 참석했다.

成총장은 "金회장님은 우리나라 건축계의 기둥"이라며 "이번 기금을 '목천 김정식 건축학 발전기금'으로 명명하고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金회장은 1967년 국내 최대 건축설계사무소인 정림건축을 시작으로 2007년 디자인캠프문박(dmp) 대표를 맡아 우리나라 건축계를 선도해왔으며, 대표적인 건축 작품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청와대 본관, 인천국제공항, 문화방송(여의도 사옥), 이화여대 등을 설계했다. 2006년에는 목천김정식문화재단을 설립, 해방 이후 한국 건축사를 발굴·연구하는 건축 아카이브 사업을 펼치고 있다.

추상화가 洪貞熹화백 1억원 상당 작품 기증

지난 1월 29일 추상화가 洪貞熹(회화65-69)동문(사진)이 모교 미술관(MoA)에 1억원 상당의 작품을 기부했다.

모교는 이날 洪화백, 成樂寅총장, 李哲洙기획처장, 金成嬉미술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했다.

成총장은 "기부해주신 작품 전시를 통해 교육과 학술 연구에 소중하게 활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색채의 연금술사'로 불리는 洪화백은 부단한 모색과 실험을 통해 고유한 색면회화의 세계를 구축해왔다. 물감에 톱밥과 커피가루를 섞거나 푸근한 느낌을 내기 위해 생선뼈를 갈아넣는 등 완벽한 색을 향한 열정으로 끊임없이 색채 표현을 연구하는 작가로 알려졌다. 〈秀〉

재학생의 소리

"매월 희망의 집짓기 활동 참여"

朴 知 瑟
(건축12입)
햇빛봉사단 회장

집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엄성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의식주 중 하나입니다. 집은 더 나은 삶을 위한 토대이자 사는 사람의 기분, 생활, 일생까지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해비타트는 모두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을 비전으로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비타트의 학생 자치조직인 햇빛봉사단은 2005년에 창립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학기 초(3월, 9월)에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해비타트 본부로부터 대학생 CCYP 담당 간사님이 오셔서 해비타트의 비전과 원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본격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4월부터 11월까지는 매월 1회 이상 꾸준히 희망의 집짓기 활동에 참여합니다. 춘천, 광양, 군산 등 다양한 지회로 이동해 홈파트너와 같이 땀을 흘리며 그 시기에 맞는 작업을 돕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 기관에 부족한 학습 자재를 기증하고 있습니다. 책상, 책장, 의자, 신발장 등 다양한 가구를 직접 제작해서 배달합니다. 방학에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화분만들기와 산타봉사를 진행해 지역아동센터와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가구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연탄 나눔봉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따뜻한 집에서 겨울을 나는 것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자체적으로 동아리 소개제 등을 통해 모금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크루리더 스쿨 등에 참여해 집짓기 및 집고치기 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회장과 부회장, 총무로 구성된 회장단과 그 아래 건축팀, 홍보팀, 운영팀, 친목팀이 동아리의 다양한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일합니다. 단원들, 사업을 진행하는 학내 글로벌사회공헌단, 지역아동센터, GS CRS팀 등을 통해 개선 사항을 받아 보다 나은 동아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햇빛봉사단만의 색깔을 가지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대학생이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제 2회 전국대학생 IEL&E4E Quiz Contest

2015년 3월 23일 (월) 12:00AM부터
2015년 4월 10일 (금) 11:59PM까지
http://www.ielquiz.com 접속후 응시

제 2회 전국 대학생 IEL&E4E Quiz Contest는 우리나라 이공계 대학생들이 석 박사 과정 진학 및 취업 후에 필수적으로 이용하게 될 IEL에 보다 먼저 친숙해지고, 전문지식 습득과 공학 영어 학습이라는 학생들의 큰 두 가지 과제에 도움을 주기위해 IEEE가 후원하고 KITIS가 개최합니다.

IEEE상 I 장학금 200만원과 상패
KITIS상 I 장학금 100만원과 상패
우수상 I 장학금 50만원과 상패(4명)
참가상 I 상품권 10만원(10명 추첨)

시상날짜: 2015.5.21 목요일
시상장소: 2015 IEEE Korea Seminar Millennium Seoul Hilton (서울역)

IEEE Quiz Contest 관련 기타문의사항
Email. ielquizcom@gmail.com
Web. www.ielquiz.com

IEEE 2015 Quiz Contest in KOREA

제 1회 IEL&E4E Quiz Contest 시상식 사진

IHS IEEE SAE INTERNATIONAL
Authorized Dealer in Korea

키티스産學研情報(株)
KITIS Info. & Co., Ltd
http://www.kitis.co.kr TEL. 02-3474-5290(代)
대표 홍영표 (국제대학원 GLP 21기)

다양한 잠재력을 지닌 선한 인재들을 후원해주세요

선한 인재 장학금이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며 꿈을 위해
노력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이렇게 쓰입니다

가계소득 1분위 이하*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인당 매월 생활비 30만 원 지원

* 가계소득 1분위 : 월 소득인정액 108만 원 이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이만큼 필요합니다

매년 27억 원(학기당 750명)

360만 원이 모이면 한 명의 학생에게
1년의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900억 원이 모이면 기금 운용수익을 통해
매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약정 참여

02-880-8004, 02-871-8146 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ARS 후원

060-700-8004 한 통화에 **5,000**원이 기부됩니다.

* 유증 및 부동산 등 기타 현물자산 기부를 희망하실 경우,
담당자가 상담해 드립니다.

*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출연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은 세액공제, 법인은 연간 이익금액의 50% 내에서 손금 처리 가능)

서울대학교발전기금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연구공원본관(940동) 2층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전화 02-880-8004 팩스 02-872-4149 이메일 snuf@snu.ac.kr 홈페이지 www.snu.or.kr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웨딩홀은 동문 여러분들의 소중한 순간을 만드는 곳 입니다.
- 두 사람이 하나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넓은 웨딩홀과 MSG를 사용하지 않는 건강한 먹거리,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로 모실것을 약속합니다.
Wedding Day
T.02)880-0300
www. hoam.ac.kr
HOAM FACULTY HOUSE
호암교수회관

Yes Gumi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구미공단 경쟁력 강화로
창조경제 선도
5공단 조기 조성 및 노후1공단 혁신 · 재생 단지 본격 추진
고부가 가치 주력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기능 강화
구미시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
전라북도

콩트 릴레이

충견 똘이의 죽음

全 孝 澤(자원공학67－71)
모교 에너지자원공학과 명예교수·수필가

나는 동물과의 잊지 못할 인연으로 강아지 똘이가 있다. 똘이는 우리 집에 생후 1개월 만에 왔는데, 지인이 선물한 시추와 마르티스 잡종의 흰색 강아지였다. 아주 똘똘하게 생겨 이름을 ‘똘이’라고 지었다. 어려서부터 영리해 우리 가족을 잘 따랐으며 우리 집에서 누가 가장 어른이고 파워가 있는지를 아는 영특한 강아지였다. 체구는 애완용인지라 성장 체중 4kg, 키 30cm 정도였다.

똘이가 어릴 때는 아파트 현관문이 열려만 있으면 쏜살같이 밖으로 뛰어 나가 찾느라고 애를 먹이곤 했으나 다행히 멀리까지 가진 않고 아파트 단지 뒤편의 초등학교까지 달아나는 경우가 가장 멀리 간 경우였다. 주말이면 오전에 목줄을 하고 데리고 나가 산보를 했는데 이 작은 체구의 강아지가 앞서 가겠다고 씩씩거리며 나를 끌고 가곤 했다.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30여 분 산보를 했다. 산보 거리가 점점 길어지면서 주변의 다른 아파트단지까지 걷기도 하고, 아파트 주변 경부고속도로 옆길을 따라 이웃 동네까지 걷곤 해 산보시간이 1시간 이상 길어지기도 했다.

신기한 점은 내가 주말에 산보를 나가지 않고 누워 있으면 내 머리를 앞발로 툭툭 치며 나가자고 하는 것이었는데, 평일에는 가만히 있다가 주말을 어떻게 알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 신기했다. 내가 아침에 출근하기 위한 옷차림을 하고 현관문을 나서면 절대로 짖지 않고 가만히 있곤 하는데, 집에서 잠깐 외출하려고 또는 복도로 나가려고 옷을 입고 있으면 자기도 데려가라고 짖어대고 따라오는 것도 기특했다.

나는 자녀를 1남 2녀를 뒀는데 아들이 군에 가고 딸 둘이 외국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으로 출타해 거의 일년간 집안에 아이들이 없고 아내와 단둘이 있던 적이 있었다. 이때 우리는 똘이를 둘째 아들이라고 불렀으며 부부만 있던 조용한 집안에 많은 위로가 됐다. 2년 반 전 대학에서 정년하며 제자들이 준비한 정년기념 초청강연과 만찬회에서는 발표용 슬라이드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 집 둘째 아들이라고 설명을 붙인 똘이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똘이는 우리 집에서 1995년 2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15년여를 살다가 심장판막증이라는 병으로 약 6개월간 투병생활을 하고 죽었다. 2009년도 봄으로 기억되는 어느 날 똘이를 데리고 아파트 주위를 산보하는 중이었다. 똘이가 평지에서는 앞장서서 잘 걸어가더니 아파트 정문을 지나 오르막길이 나타나자 걸음을 멈추고 계속 안아달라는 것이었다. 그동안 항상 나보다 앞에 서서 나를 끌고 가듯 하던 녀석이 이제 나이가 15살이 됐으니 늙고 약해져서 경사진 길을 오르기가 힘든가보구나 하고 가볍게 생각했으나 이런 현상이 반복됐다.

또한 여름의 더위를 대비해 똘이의 털을 깎아주고 보니 배 부분이 불룩했고 집안에서도 걸어가다 뒤뚱거리며 몸을 못 가누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진찰을 받아 봐야겠다고 생각하고서는 늘 예방주사를 맞던 동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큰 종합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 우리 대학의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다.

동물병원에서의 입원 진료 과정은 일반 병원과 같이 환자 동물 이름, 나이, 증상과 진료 담당 주치의 교수를 배정하고 나서 진료가 시작됐다. 주치의인 수의과대학 교수는 진찰 결과 똘이가 심장판막증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여서 당장 입원해야 하며 입원 중에라도 잘못될 수가 있다는 소견을 들려줬다.

똘이는 3박 4일간 입원해 진료를 받았고 배에 찬 물을 빼내었으며 집에서의 치료 방법을 듣고 치료약을 받은 후 퇴원했는데 그동안의 여러 검사 비용 등을 포함한 입원비가 무려 1백여 만원이 넘었다. 교직원 할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치료는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아 많은 비용이 들었다. 그 이후 한 달에 한 번 꼴로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받아오는 생활이 약 6개월 지속됐다. 문제는 똘이가 약을 먹지 않으려 하는 것이었다. 다른 음식과 섞어 주기도 하고 물에 타서 억지로 먹이기도 했으나 이때는 안 먹으려하고 사나워져 물기도 하는 등 약을 먹이는 어려움이 컸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 담당 주치의 교수는 똘이가 나이도 많고 심장병으로 수개월 내로 죽을 것이므로 가족들과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 내 주변에서는 안락사 방법도 있음을 알려 줬으나 아이들의 반대로 안락사는 포기하고 살아 있는 마지막까지 치료를 계속해 가기로 했다.

> “
> 나는 지금도 둘째 아들 똘이의 크고 영리한
> 눈망울과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 아프면서도 주인 가족에게 한결같이 보여준
> 반가운 모습과 충성심을 생각할 때마다
> 똘이가 몹시 그리워진다.
> ”

일러스트레이터 蘇余廷(디자인09－13)

개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15년 내지 20년이라 하며 사람의 나이로 환산하면 개의 나이에 5를 곱하면 된다고 하니 똘이의 나이는 사람 나이로 75세에 해당되는 나이였다.

똘이는 병중에는 하루 종일 거실에 옆으로 누워 있었으나 초기에는 내가 퇴근해 현관문에 들어서면 “똘이야 나오지 않아도 돼” 하는데도 아픈 몸을 질질 끌고 뒤뚱거리며 현관까지 나와 나를 맞이하곤 했고 병이 더욱 심해져서 움직이지 못할 때에는 내가 퇴근해 들어오면 머리를 돌려 나를 쳐다보며 아는 체를 하곤 했다. 나는 개의 충성스러움을 새삼 느끼며 우리들도 아니 자식들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곤 했다. 사람들이 화가 나서 싸울 때 왜 상대방에게 ‘개XX(son of a bitch)’라고 욕을 하며 경멸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과연 부모님께, 친구나 지인이나 직장 상사에게 또는 주변 이웃에 얼마나 믿을만하고 신뢰감이 있으며 충성을 다해 보살펴 줄 수 있는지 반문해 본다. 똘이는 병중인 6개월간 아프다고 신음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다.

우리는 조금만 몸이 불편해도 신경질과 짜증을 내며 가족들을 귀찮게 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을 돌보아 주기 원한다. 또한 자기가 병중인데 신경 써 주지 않는다고,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일쑤이다. 나는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은 없지만, 앞으로 나이가 더 들어 병원을 자주 찾고 입원을 하게 된다면 가족들에게 또한 주변의 친지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얼마 전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위한 경력전환 교육 프로그램에서 건강과 힐링 강의를 들으며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중환자실에서 산소마스크를 쓰지 않고 조용히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서류 작성법을 알게 돼 안심하고 있다. 가능하다면 수의보다는 평소 즐겨 입던 셔츠를 입고 시신은 화장하며 가족과 친지들에게 생전의 자신만만하고 건강하며 열심히 살던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 주자는 생각이 깊다.

나는 ‘살아 있다’는 의미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며, 특히 책을 읽을 수 있고 글쓰기를 할 수 있으며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때’라고 생각하고 있다. 집안의 장남으로서 부모님의 장기간 병환을 겪으며 스스로에게 남겨진 신념인지도 모른다. 조용히 편안하게 보내드려야 할 부모님이나 지인들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단지 생명만을 연장하는 주변 모습에 익숙하지 않다.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이 산소마스크로 생명을 연장하는 식물인간의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누누이 다짐을 주고 있다.

마침내 2009년 10월 20일 오후 1시경 아내가 외출 후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에 똘이가 누워 있었고 설사를 해서 거실 바닥이 더러워져 있었다고 한다. 그 순간도 아내에게 반갑다고 누워서 꼬리를 쳤고 고개를 들어 집사람을 보며 반겼다고 한다.

아내는 똘이의 더러워진 몸을 씻어주기 위해 똘이를 샤워실로 옮겼는데 몸을 씻기도 전에 눈을 뜨고 숨을 거두었다고 근무 중인 나에게 알려줬다. 아내는 똘이를 깨끗이 씻어준 후 준비해둔 하얀 상자에 깨끗한 수건을 깔아 똘이를 눕히고, 흰 수건을 덮고 상자 뚜껑을 덮어 똘이의 관으로 손색이 없게 했다.

나는 가족과 상의해 애완용 동물들을 화장하는 장소가 있는 김포 서쪽 애완동물 화장집－마치 유치원 건물처럼 생긴 집－으로 똘이 관을 승용차로 옮기고는 기독교식으로 찬송가를 녹음으로 들려주며 용광로로 들어가는 똘이의 시신을 유리창 너머로 보았다. 화장 후 뼛가루를 담은 작은 유골 항아리는 우리 집 거실에 똘이 사진과 함께 진열했다. 똘이는 거실에서 지난 3년 반을 더 머물다가 재작년 3월 말 강원도에 위치한 부모님 묘소 옆자리에 납골 항아리째 깊이 묻히며 우리 가족 곁을 떠났다.

나는 지금도 둘째 아들 똘이의 크고 영리한 눈망울과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아프면서도 주인 가족에게 한결같이 보여준 반가운 모습과 충성심을 생각할 때마다 똘이가 몹시 그리워진다. 똘이가 죽은 후 나와 우리 가족은 심적으로 상당히 상처를 받아 앞으로 수년간은 강아지를 받아 키우기가 어려우리라 보고 있다.

동 정

수 상

▲李炳駟(농학57-63 모교 식물생산과학부 명예교수)=지난 2월 11일 재한동경대총동문회로부터 자랑스러운 동경대인상 수상.

▲吳昞南(미학59-63 前한국미학회장·모교 미학과 명예교수)=지난 3월 1일 재단법인 3·1문화재단으로부터 제56회 3·1문화상 학술상(인문·사회과학 부문) 수상.

▲박배호(물리89-93 건국대 교수)=오는 3월 25일 포스코청암재단으로부터 포스코청암상 과학상 수상.

인 사

▲具聖會(생물교육55-59 을지대 법인이사)=지난 2월 16일 환경전문가단체인 逸士會 제10대 회장에 선출.

▲金東璿(대학원56-59 前한국외대 총장·前광성학원 이사장)=지난 2월 9일 학교법인 광성학원 명예이사장에 추대.

▲金仁浩(행정60-66 前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지난 2월 26일 한국무역협회 제28대 회장에 선임.

▲李良熙(행정62-66 前국회의원·세일자산관리 회장)=지난 2월 24일 한국사료협회 제32대 회장에 선임.

▲鄭明熙(의학65-71 모교 의학과 명예교수)=지난 2월 12일 가천대 이길여 암·당뇨연구원장 겸 의무부총장에 선임.

▲李丙琪(외교66-71 前駐일본 대사·국가정보원장)=지난 2월 27일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

▲李元馥(건축66입 덕성여대 석좌교수·본보 논설위원)=지난 3월 1일 임기 4년의 덕성여대 제10대 총장에 선출.

▲李元燮(외교69-76 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본보 논설위원)=최근 가천대 교수 정년퇴임 후 명예교수에 위촉.

▲吳然天(정치70-74 前모교 총장·모교 행정대학원 교수)=지난 2월 23일 임기 4년의 울산대 제10대 총장에 선임.

▲崔碩求(의학70-77 인제대 서울백병원 내과 교수)=지난 3월 1일 임기 2년의 서울백병원 원장에 재선임.

▲河昌佑(법학74-78 前법무부 정책위원·前서울지방변호사회장·변호사)=지난 2월 23일 임기 2년의 대한변호사협회 제48대 회장에 취임.

▲嚴虎聲(지리교육74-80 前서울중부경찰서장)=최근 전직 수사경찰관 모임인 수사경찰발전동호회 회장에 취임.

▲李建雨(기계공학74-78 모교 공대 학장)=최근 미래창조과학부 X(엑스)연구추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

▲任正赫(법학75-79 前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대검찰청 차장검사)=지난 2월 11일 법무연수원장에 임명.

▲趙鏞龜(법학75-79 前인천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지난 2월 12일 사법연수원장에 임명.

▲呂相薰(법학75-80 前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정부지방법원장)=지난 2월 12일 서울가정법원장에 임명.

▲柳一鎬(경제75-81 前한국조세연구원장·국회의원)=지난 2월 17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

▲沈相哲(법학76-80 前서울동부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지난 2월 12일 서울고등법원장에 임명.

▲禹成萬(법학76-80 前창원지방법원장·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지난 2월 12일 대구고등법원장에 임명.

▲元允喜(경제76-80 前한국조세연구원장·서울시립대 교수)=최근 임기 4년의 서울시립대 제8대 총장에 임명.

▲尹寅台(법학80졸 前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장)=지난 2월 12일 부산고등법원장에 임명.

▲文容宣(법학76-82 前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지난 2월 1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장에 임명.

▲姜玟求(법학77-81 前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장)=지난 2월 12일 부산지방법원장에 임명.

▲金紋奭(법학77-81 前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장)=지난 2월 12일 서울행정법원장에 임명.

▲金相局(법학77-81 前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장)=지난 2월 12일 대구가정법원장에 임명.

▲閔中基(법학77-81 前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지난 2월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 임명.

▲金秀南(법학78-82 前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지난 2월 11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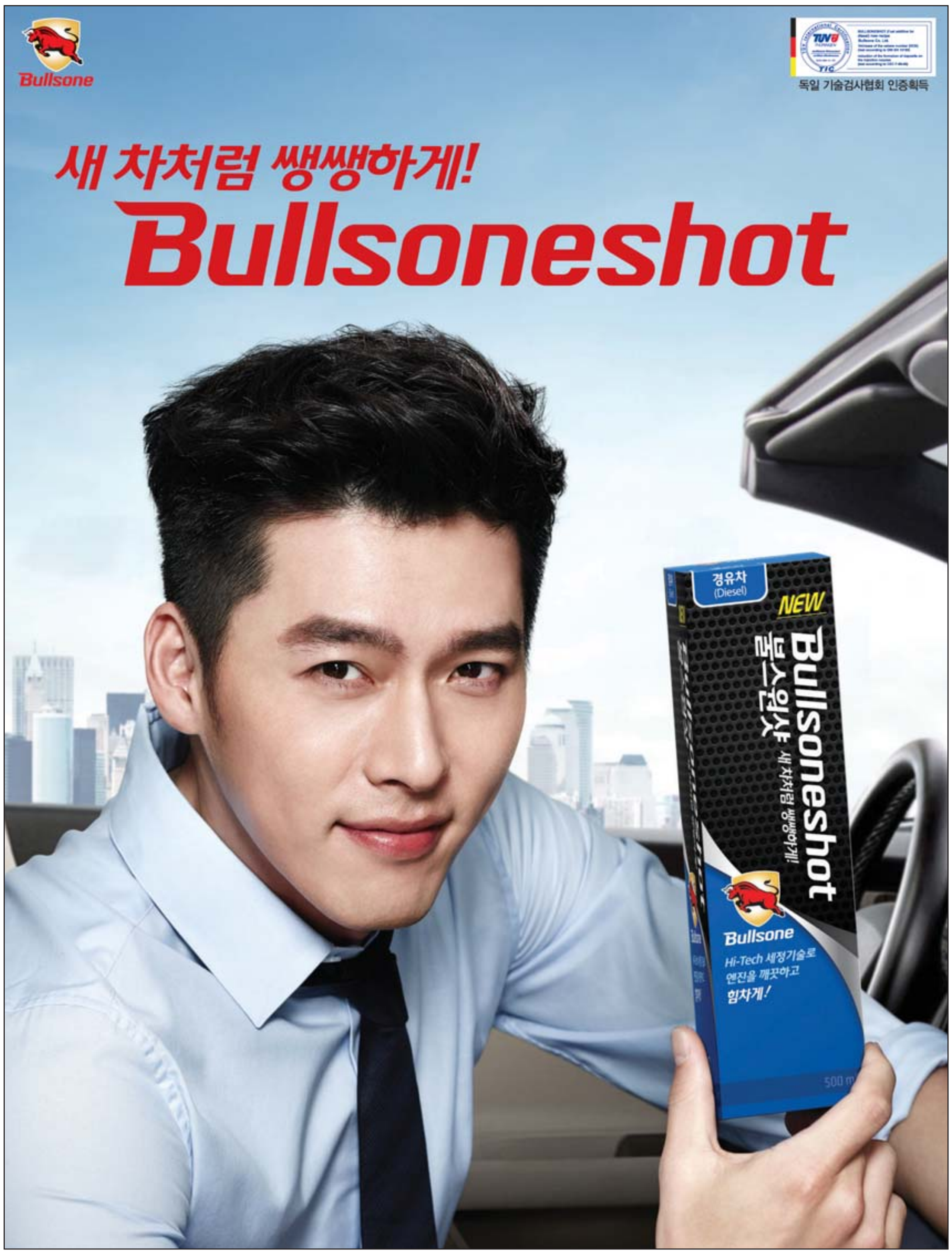
▲金賢雄(법학78-82 前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법무부 차관)=지난 2월 11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임명.

▲兪奇濬(법학78-82 前한국해양대 겸임교수·국회의원)=지난 2월 17일 해양수산부 장관에 내정.

▲尹誠根(법학78-82 前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지난 2월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 임명.

▲趙英哲(법학78-82 前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지난 2월 12일 의정부지방법원장에 임명.

▲李昇燁(불문79-83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지난 2월 12일 임기 3년의 세종문화회관 사장에 취임.



▲金炳豪(영문80-84 하나은행 부행장)=지난 2월 10일 서울 종로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제6대 하나은행장에 취임.

▲金周賢(사법81-85 前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지난 2월 11일 법무부 차관에 임명.

▲曺成旭(사법81-85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지난 2월 11일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임명.

▲任鍾龍(행대원82-84 농협금융지주 회장)=지난 2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내정.

▲金熙官(사법82-86 前부산지방지방검찰청 검사장·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지난 2월 11일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임명.

▲金載春(교육82-86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교육비서관)=지난 2월 8일 교육부 차관에 임명.

▲洪性宇(의학83-89 인제대 서울백병원 외과 교수)=지난 3월 1일 임기 2년의 서울백병원 진료부원장에 선임.

▲張樂元(공법83-91 前서울고법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지난 2월 23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에 임명.

▲鄭点植(법학84-88 前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지난 2월 11일 대검찰청 공안부장에 임명.

▲安兌根(법학85-89 前법무부 인권국장·기획조정실장)=지난 2월 11일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

▲金朋年(의학86-92 모교 정신과학교실 교수)=최근 국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실행이사회 이사에 선임.

▲徐允晋(기악94-98 경희대 외래교수·피아니스트)=지난 3월 1일 광주교육대 음악교육과 교수로 부임.

▲李義鉉(AIP 20기 대일특수강 대표)=지난 2월 26일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정기총회에서 임기 4년의 이사장에 선출.

▲李康源(AIP 33기 前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지난 2월 12일 창원지방법원장에 임명.

▲趙嬉珍(AIP 40기 前법무연수원 연구위원·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지난 2월 11일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임명.

▲李完九(ACAD 30기 前충남도지사·前새누리당 원내대표)=지난 2월 17일 제43대 국무총리에 취임.

▲朴民權(AIC 6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체육레저정책실장)=지난 2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임명.

▲崔在裕(AIC 14기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장)=지난 2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에 임명.

행 사

▲李吉女(의학51-57 가천대 총장·본회 부회장)=지난 1월 28일 가천대 길병원에서 여성암환자만을위한 여성암센터 개소식 개최.

▲金南辰(행정51-55 고려대 명예교수·대한민국학술원 회원)=지난 2월 12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한국규제법학회·이화여대 법학연구소 공동주최 국제학술대회에서 '한국에서의 보장국가론과 규제개혁'을 주제로 기조연설.

▲張明奉(행정63-72 국민대 명예교수·북한법연구회장)=지난 2월 26일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북한 라선경제특구의 개발과 관리에 과한 법제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월례발표회 개최.

▲鄭明洙(미학64-71 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장)=지난 2월 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중국콜드체인협회와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文昌克(정치68-72 前중앙일보 대기자·본회 부회장·본보 논설위원)=최근 '문창극의 역사 읽기'(기파랑 刊) 출간.

▲朴明潤(보대원74-76 민주평통 교육민족화합포럼 회장·관악회 이사)=지난 3월 7일 서울산 내리회관에서 '청소년 통일교육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宋在光(기악80입 이화여대 교수·바이올리니스트)=지난 3월 12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모차르트의 작품으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李惠恩(기악83-87 피아니스트)=지난 3월 13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브람스, 베토벤, 슈만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조유리(기악96-00 바이올리니스트)=오는 3월 22일 서울 예술의 전당 IBK챔버홀에서 모차르트, 사라사테, 슈만 등의 작품으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張守敏(기악06-10 바이올리니스트)=지난 3월 3일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브람스, 메시앙, 포레 등의 작품으로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權炤延(약학07-11 삼성바이오에피스 근무)=2013년에 발표한 모교 석사학위 논문(중금속 납이 신장의 적혈구탐식작용을 매개한 신장독성 유발기전에 관한 연구)이 미국 국제학술지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2015년 2월호에 게재됨과 동시에 '이달의 뉴스'로 선정.

삼가 명복을 빕니다

▲全南錫(사회교육59졸 前서울신문 외신부장)=1월 23일 별세(80세)

▲黃泳璇(국사58-63 前춘천MBC 사장)=2월 15일 별세(77세)

▲李大燁(ACAD 16기 前경기도 성남시장)=2월 6일 별세(80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합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 e메일 : snua1969@naver.com 또는 snua@korea.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변호사 김성일 법률사무소

21년간 몸담은 정든 검찰을 떠나
초심으로 돌아가 사회에
기여하는 법조인이 되겠습니다.

김성일 변호사

■ 주요경력
안양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 재직당시 안양원예농협 금리조작사건 간부 구속, 재건축비리 재개발조합장 구속, 혈세로 도박한 정부관료 구속 등. 서민 생활에 밀접한 사건과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는 정의검사로 불려졌으며, 모범검사상 수상과 환경전담 우수검사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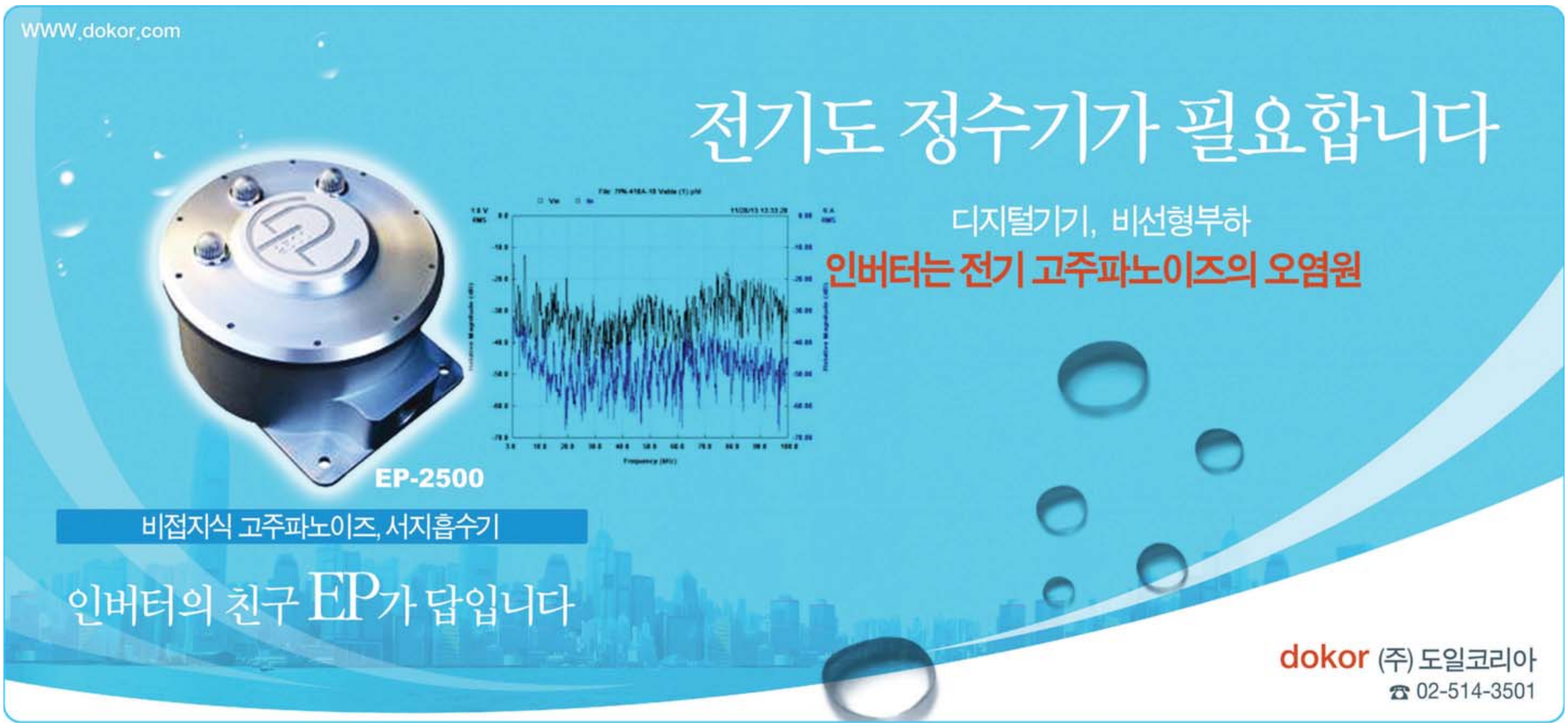
■ 전문분야
특별수사(금융, 조세, 기업비리), 형사(환경, 청소년, 성폭력), 민사, 행정

■ 업무장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 10, 308호(서초동, 정곡빌딩 남관)-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위치

■ 대표전화 (02)591-8300

■ 주요 학력 및 경력
* 서울대학교 ALP 21기, ASP 26기, SGS 25기
* 서울 광성고(65회), 연세대 법과대학(81학번)졸업
* 서울중앙, 부산, 인천, 의정부 검사
* 대구서부, 부천, 의정부, 안양부장검사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22기) 수료
* 서울서부지검, 제주 부부장검사
* 서울고검, 대전고검(청주지부장) 검사

서울대 학생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
서울대 학생증 소지시
신림점, 서울대입구점 (배달가능)
5%DC (배달포함)
오징어후라이드
크리스피후라이드
홀랄라를 더 알고 싶다면 QR코드를 찍어 보세요!!
www.hoolala.co.kr
HOOLALA CHICKEN CAFE
홀랄라의 '명품치킨요리'가
문앞까지 배달합니다!
서울대 전지역 배달가능
배달대표번호 1577-0004
신림점 873-9000 / 서울대입구역점 878-0878
홀랄라 중국 북경 1호점 베이징 10대 매장 선정
서울대입구역
신림역
홀랄라 서울대입구점
홀랄라 신림점
참숯치즈바베큐
참숯문어바베큐
참숯고구마바베큐(치즈떡&고구마떡 택1)
참숯해물바베큐
바베큐 치킨 최강자 홀랄라가
대박 가맹점주님을 모집합니다
웰빙 시대의 소비자들은 야식과 안주에도 건강을 생각합니다. 홀랄라의 '재료&요리 철학'이 손님을 감동시키고 이는 곧 높은 매출로 이어집니다.
착한 철학의 홀랄라가 예비 점주님의 대박을 보장합니다.
가맹문의 1588-9205


WWW.dokor.com
전기도 정수기가 필요합니다
디지털기기, 비선형부하
인버터는 전기 고주파노이즈의 오염원
EP-2500
비접지식 고주파노이즈, 서지흡수기
인버터의 친구 EP가 답입니다
dokor (주) 도일코리아
☎ 02-514-3501

HIGH VOLT
THE POWER BEHIND POWER.
www.reinhausen.co.kr
MR
라인하우센 코리아
대표 김종석 (전기공학 35회 졸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7 스탠다드차타드은행빌딩 21층
T. 02. 767. 4900 F. 02. 736. 0049
E. JongSeok.Kim@kr.reinhausen.com

신 간

■ 가자 가자 이어도로

― 黃哲益 지음

안양대, 건국대 교수를 지낸 黃哲益(작곡53-57)동문이 작곡한 합창곡을 악보와 함께 엮은 책.

현재 한국예술가곡진흥위원회 창립창작위원, 한국작곡가협회와 작악회 상임고문, 한국평론가협회 고문으로 활동 중인 黃동문은 이 책에 '가자 가자 이어도로', '꽃파는 아가씨', '내가 만약', '백합의 노래', '벚꽃', '새 몽금포 타령', '아리 아리랑', '우리의 독도, 아픈 사랑이여', '집을 나간 꼬꼬야' 등을 수록했다. 〈음악춘추刊·값30,000원〉

■ 길 위에서의 기다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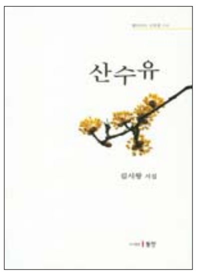
― 鄭鎭弘 외 지음

모교 종교학과 鄭鎭弘(종교56-60)명예교수 등 남풍회 '熟麥' 동인 13명의 여덟 번째 문집.

이 책에는 모교 金學主(중문52-56)·金容稷(국문54-58)·李相沃(영문58졸)·金璟東(사회55-59)·李翊燮(국문56-60)·金明烈(영문62졸)·郭光秀(불문59-65)명예교수와 金在恩(교육50-54 이화여대)·金昌珍(국문57졸 가톨릭대)·李相日(독문53-57 성균관대)·金相泰(국문56-60 이화여대)·朱鐘演(국문60졸 국민대)동문 등의 에세이 작품이 담겨 있다. 〈푸른사상刊·값20,000원〉

■ 산수유

― 金時汪 지음



서울신탁은행을 거쳐 삼성투자신탁증권 상무·감사·고문을 지낸 金時汪(상학57-63)동문이 두 번째 시집을 출간했다.

2013년 4월 월더니스 문학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한 金동문은 이번 시집에 70여 편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희수의 나이를 맞아 미래 지향적인 인생관, 세계관, 통일관 등 경험철학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려고 했다. 〈동인刊·값 8,000원〉

■ 하늘과 땅의 그대

― 柳宗旻 지음

중앙대 예술대학장을 역임한 조각가인 柳宗旻(조소60-64)명예교수의 네 번째 시집.

1999년 현대시학을 통해 등단한 시인은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 가장 존귀하며,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이 가장 고귀한 것으로 변하는 것이 시인의 연금술이며, 시인은 언어의 연금술로 세상을 새롭게 만든다"며, 시어 하나하나를 조각하듯 이 시집을 통해 우주 자연과 하늘, 나와 그대를 초월한 柳시인만의 깨기 위한 시의식으로 새로운 우주의 꿈을 꾸고 있다. 〈연인M&B刊·값 8,000원〉

■ 꽃섬

― 朴鍾圭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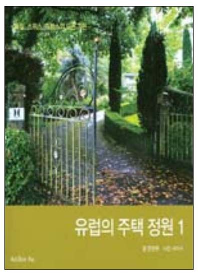
한국소설가협회 중앙위원인 朴鍾圭(응용미술69-73)동문이 '바다칸타타'에 이어 두 번째 수필집을 펴냈다.

이 책은 색동 수의, 횟집 간판, 못, 청소년 은어, 압록강을 비롯한 수많은 소재가 등장하며, 반어법으로 풀어나간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 등 다양한 분야에 천착한 작품들로 꾸며져 있다.

미대 출신인 저자는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이 책에 독자 이름을 캘리그라피로 작품화해서, 표지 창에 독자의 이름 부분이 뜸으로써 그 독자만의 책 표지가 되도록 했다. 〈폴리곤커뮤니케이션즈刊·값 12,000원〉

■ 유럽의 주택 정원1

― 文玄珠 지음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가든 디자인 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文玄珠(농가정74-78)동문이 유럽의 주택 정원을 답사해 정원 주인과 나눈 정원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실었다.

이 책은 정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정원 6곳, 스위스 정원 4곳, 프랑스 정원 2곳 그리고 쇼 가든 3곳을 정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마치 저자와 함께 정원 투어를 하는 느낌을 준다. 또한 정원 여행 중 에피소드와 정원 가꾸기의 팁을 담아 재미있게 구성했다. 〈Atelier Isu 刊·값19,000원〉

■ 「집사람」이 된 그 남자

― 沈良燮 지음

경향신문·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한림대·가천대 강사, 어린이 글쓰기 커뮤니티 '송알송알'의 공동대표로 활동 중인 沈良燮(동양사학80-87)동문의 주부 생활 지침서.

이 책은 방학을 포함해 1년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하는 정규직 교수 부인을 모시고 (?) 사는 비정규직 시간 강사 남자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다시피 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느낀 즐거움과 애틋함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가 이 책에서 남녀 성 역할 같은 주제를 심각하게 논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그다지 자랑스럽지 않은 자신의 많은 이야기를 시시콜콜하게 공개함으로써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켜 작은 변화라도 일으키기를 바라고 있다. 〈한울刊·값16,500원〉

공 연

■ 李倫定 오보에 독주회

― 3월 29일 예술의 전당

경희대 음대 李倫定(기악90-94)교수(사진)가 3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오보에 독주회를 개최한다.

세종 목관챔버 앙상블 회원인 李동문은 이날 아놀드, 라이네케, 슈만 등의 작품을 연주한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 金到姸 비올라 독주회

― 4월 4일 예술의 전당

비올리스트 金到姸(기악88-92 성신여대 교수)동문(사진)이 4월 4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IBK챔버홀에서 비올라 독주회를 갖는다.

한국페스티발앙상블 단원인 金동문은 이날 바흐, 힌데미드, 베토벤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DAEDUCK GDS
Global Digital Solution
DAEDUCK
SMART Technology for the Future
보다 나은 내일을 지향하는 대덕
한국 PCB산업을 대표하는 대덕은
최고의 기술과 품질로 50년 동안 국내 PCB산업을 선도해왔으며,
이제는 세계 디지털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최고 PCB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전에서 모바일, 자동차, 그리고 미래형 첨단기기까지
사람을 위한 디지털 세상,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창조적 기술 진화로 미래의 스마트 시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DAEDUCK PORTFOLIO
Automotive PCB
HDI-Rigid Flex
Flexible PCB
Rigid Flexible PCB
High Density Interconnection
Multi Layer Board
LED Metal PCB
Package Substrate

동충하초로 만든 면역 관련
식약처 기능성 인정 건강기능식품
'동충일기'
동아제약
동충일기
冬蟲日記
동아제약 자체 개발 및 인체적용시험 완료
국내 최초 동충하초 면역 관련 개별인정형 허가 취득
(동충하초 주정추출물 1.5g/일(식약처 제 2013-16호))
스트레스 등으로 약해질 수 있는 면역 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
100% 국내산 발아 현미 동충하초 원료 사용(친환경 재배)
● 고객만족실 080-920-2002
동아제약 건강기능식품

法務法人 大亞
대표변호사 강 창 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연수원 제12기 수료
· 육군법무관 전역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 마산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고등검찰관
· 수원지방검찰청 고등검찰관
본 점 –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713-1 한승아스트라 II 307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TEL. 02. 532. 0504 FAX. 02. 532. 0554 E-mail. kcj4147@naver.com
안양지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4-1 효성인텔리안 309호 TEL. 031. 382. 7090 FAX. 031. 382. 7092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 2015년 1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2015. 1. 3～2015. 1. 30)·일반(2015. 1. 3～2015. 1. 30)
원내 숫자 :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 총동창회비 납부 계좌(성명과 입학연도 기재)
농협 079－01－442414 / 신한 140－001－180304 / 우리 1005－401－137376 / 국민 827－01－0248－009(예금주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총동창회 홈페이지(www.snua.or.kr)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회 장 단

△부회장 李大淳= 1백만원
△부회장 鄭鍾旭= 1백만원

관 악 회

△이 사 孫一根= 1백만원

상임이사

△朴健培 치대동창회장= 20만원
△李世漢 AIC동창회장= 20만원
△權棋大 IFP동창회장= 20만원

평생회비

〈이사〉 △고영선 HPM(26)
△곽기현 ACAD(70) △곽호상 공대(82)
△김기광 사대(64) △김상도 농대(69)
△김정식 공대(48) △김주영 법대(92)
△김해연 ALP(15) △류재욱 공대(86)
△박병국 공대(82) △배명인 법대(52)
△송창범 문리(71) △신덕재 치대(68)
△안준현 사회(91) △위종진 사대(91)
△유국환 인문(81) △윤석환 사회(87)
△이상동 GLP(24) △이지연 사대(82)
△정재욱 AMP(75) △최정일 經院(92)
△함의근 의대(52)

〈일반〉 △강정광 공대(10)
△강희양 ACPM(10) △고윤화 음대(98)
△김관행 ACAD(75) △김규태 공대(85)
△김금옥 음대(67) △김대환 자연(02)
△김명원 의대(86) △김무양 상대(63)
△김미숙 사대(71) △김아림 음대(00)
△김원만 大院(99) △김윤수 문리(68)
△김정렬 사대(69) △김종기 법대(75)
△김준헌 치대(86) △김해석 공대(70)
△김헌홍 공대(70) △나기환 자연(68)
△노영우 치대(76) △노용택 자연(75)
△류 혁 공대(87) △류철호 공대(67)
△문현웅 사회(06) △박 찬 공대(82)
△박경석 의대(87) △박광우 법대(77)
△박문희 사대(65) △박민영 의대(95)
△박신애 간호(04) △박영표 AFP(13)
△박찬경 AMP(35) △박형렬 사대(59)
△백영문 ALP(8) △변나향 공대(07)
△서의호 공대(71) △석성봉 공대(55)
△손유길 經院(11) △송계점 ACPM(10)
△송평근 법대(84) △송하진 行院(81)
△신선해 사대(11) △신용억 자연(72)
△심중식 공대(77) △안명주 사대(63)
△양두병 의대(69) △양차범 농대(57)
△오원철 공대(45) △유경렬 치대(50)
△유원형 농대(70) △유태완 ASP(16)
△윤계섭 상대(64) △윤재승 법대(81)
△윤혁희 문리(59) △이기오 치대(86)
△이민희 新院(73) △이수연 미대(09)
△이승균 상대(55) △이영희 문리(61)
△이재호 사회(02) △이춘계 사대(72)
△이환규 법대(99) △임성수 공대(86)
△임성재 자연(12) △임해송 ABKI(4)
△장면섭 ABKI(4) △장진선 음대(06)
△전경문 공대(99) △정상구 공대(73)
△정선희 사회(11) △정종권 사대(86)
△정학성 문리(65) △정현숙 AMP(77)
△제정임 사회(82) △조우철 行院(10)
△조풍상 음대(59) △진현기 농대(82)
△차만회 치대(57) △채명석 사회(06)
△채윤주 법대(86) △최고봉 공대(09)
△최명진 공대(08) △하준수 자연(02)
△홍승혁 공대(00)

이 사

◆인문대 △류은숙(04) △정성희(82)
◆사회대 △권민용(86) △문도선(83)
△신철식(73) △장원영(72) △조동환(82)
◆경영대 △김상규(86) △박종호(86)
△윤훈수(83) △이윤호(73) △이재욱(88)
△이준구(91) △전용주(86)
◆공대 △강순옥(53) △강인권(72)
△고재홍(75) △곽삼영(51) △김동표(81)
△김명근(53) △김명석(74) △김세준(83)
△김용수(71) △김정식(48) △김종찬(54)
△김진원(68) △김항준(73) △문찬국(73)
△민병선(55) △박세형(73) △박재범(84)
△백형배(47) △서동원(70) △서우원(61)
△선우준(76) △신영수(74) △유재운(78)
△이석준(83) △이세열(78) △이종호(59)
△이주범(56) △이중호(70) △이희달(70)
△전효택(67) △정조섭(56) △정태헌(73)
△조대승(81) △조두현(76) △진영춘(67)
◆농대 △강인석(81) △고덕구(75)
△김현태(84) △백창영(69) △석준호(55)
△신용석(61) △이계홍(56) △이성수(67)
△이원규(58) △이진희(81) △장길완(82)
△정세진(70) △허정회(72) △황인업(74)
◆문리대 △고 건(56) △권오득(63)
△김 명(67) △김승국(56) △김용성(62)
△남시욱(54) △박혜란(65) △임의신(62)
△전성철(69) △정낙찬(69) △최경락(71)
△한기호(57) △홍종웅(65)
◆법대 △강 훈(72) △강영균(84)
△강용식(58) △김동주(90) △김동호(56)
△김명종(85) △김수철(71) △김승중(68)
△김영욱(72) △김용철(46) △김진태(83)
△김태조(54) △김형렬(83) △김호철(85)
△류시열(57) △민병국(57) △박광천(81)
△박동섭(60) △박승문(78) △박정규(57)
△서규영(79) △서동희(80) △서상수(80)
△성백현(78) △송기영(69) △심명수(63)
△오복동(57) △오세희(58) △이민찬(55)
△이세훈(55) △이순기(03) △임규운(53)
△임종식(79) △전수진(86) △전수철(63)
△정구영(57) △정기용(77) △정우모(56)
△정해주(63) △조남욱(53) △조성제(85)
△조해현(81) △주성민(69) △지관엽(75)
△최상원(82) △최연희(64) △한덕수(55)
△한상태(56) △한이봉(83) △현순도(66)
△황보중(74) △황창섭(53) △황희철(77)
◆사대 △구본형(75) △김광수(72)
△민경현(53) △박문수(74) △박영배(65)
△박영배(74) △박종세(55) △변범식(86)
△송장섭(69) △안재석(86) △안지원(81)
△안희수(61) △임창선(72) △정동춘(80)
△최운식(63) △한준수(76)
◆상대 △강인식(65) △권영식(66)
△기병태(53) △김덕기(52) △김완기(46)
△김태두(50) △문운용(60) △안태호(45)
△윤영원(55) △이관규(61) △이승섭(50)
△이용진(68) △이준용(56) △이항철(54)
△정병호(53) △조원래(57) △한용석(55)
△한찬수(54) △황 훈(68)
◆생활대 △권덕윤(84) △최영선(71)
◆수의대 △김본원(63) △박종명(61)
△이강문(60) △장치훈(70)
◆약대 △김정희(57) △김진우(54)
△서석수(51) △신형균(72) △윤도중(58)
△임상웅(60) △최건혁(70) △최명식(64)
△최석표(71)
◆음대 △박윤신(95) △조 양(73)
◆의대 △강권철(69) △김동윤(76)
△김하경(70) △박지영(82) △선우대활(71)
△이정길(63) △장성근(71) △전형식(81)
△최규완(55) △한종수(71) △홍영수(66)
◆치대 △강효식(57) △김경애(57)
△김상철(73) △김성용(58) △박상균(66)
△백승동(78) △석창인(81) △손 근(71)
△이봉호(86) △이석곤(90) △최낙준(72)
△허준구(66) △황 준(63)
◆대학원 △김문한(79) △김승호(83)
△박종열(71) △정병희(52) △최윤정(04)
◆보대원 △박순영(63) △최성원(86)
△최치원(97)
◆사대원 △송정호(66)
◆행대원 △성낙승(69) △양석호(67)
△윤일균(69)
◆AMP △김중헌(49) △김진섭(9)
△서효중(3) △손창수(41) △송문호(38)
△신성우(32) △조문규(51)
◆AIP △박용진(35) △이대만(24)
△이석준(27) △이종호(31) △정하걸(45)
◆ACAD △김연수(16) △안창돈(76)
△오시철(7) △이 심(32) △최종욱(20)
◆ABP △이무성(38) △이삼희(20)
△전안희(20) △정시택(23)
◆SGS △김봉규(25) △이창근(1)
◆APC △배병헌(11) △안무경(4)
△한길호(4)
◆HPM △김복희(1) △양동근(12)
△오국진(5) △장성호(6) △조경순(12)
◆AMPP △강철환(10) △송실광(7)
△유병무(11) △이종만(5)
◆AFB △곽 후(10) △성태섭(1)
△이동락(1)
◆AMPFRI △이규태(14)
◆GLP △김병윤(16) △박세연(20)
△박홍순(27) △유영덕(7) △이영우(27)
△이용문(17)

◆ALP △김기식(5) △성기영(17) △장덕근(16)
◆ASP △김희창(24)
◆IFP △김대하(1)
◆BCP △김영순(10)
◆ABKI △최인숙(3)

일 반

◆인문대 △김나영(09) △김왕철(71) △김학균(89) △김환국(79) △신영석(87) △신중진(92) △안정민(09) △이상식(05) △이주현(99) △임인호(84) △정건희(03)
◆사회대 △구현회(03) △김동섭(81) △김민관(97) △김창효(83) △김흥수(85) △박세정(10) △박옥란(08) △신정호(09) △정용준(73) △한직환(82)
◆자연대 △김남성(83) △박용진(99) △심미성(85) △전태호(11) △정용준(01) △조은비(07)
◆간호대 △김매자(60) △한혜숙(68)
◆경영대 △김지헌(88) △송호찬(78) △장보훈(83) △최 원(06) △허일섭(73)
◆공대 △강봉돈(71) △경창성(65) △고준수(72) △곽동수(53) △구민석(07) △구중서(66) △권오석(60) △권혁선(72) △김 철(60) △김남영(69) △김민식(68) △김성태(55) △김세영(70) △김신태(63) △김영진(53) △김용구(76) △김택영(82) △남원창(99) △남학우(54) △노정익(46) △노호우(01) △문선영(10) △문섭철(78) △박동재(51) △박용규(80) △박원춘(49) △박원호(85) △박정주(78) △백승석(49) △서장열(83) △손지호(02) △신기현(08) △안재식(03) △양종화(70) △엄승호(78) △오광석(10) △우경호(78) △우상렬(52) △원준희(49) △위재용(63) △유환규(56) △육광수(46) △윤상건(73) △이갑연(83) △이경화(02) △이동린(56) △이범철(65) △이병무(61) △이예민(46) △이유진(63) △이재순(74) △이정민(52) △이준구(97) △이지훈(04) △이현식(61) △임응극(45) △임종열(50) △장옥룡(52) △장재명(57) △장학순(46) △전유정(08) △정광섭(72) △정연익(55) △정연익(55) △정자철(77) △정진삼(61) △정찬기(10) △정현균(83) △정호상(59) △조남일(70) △조춘식(70) △주준호(04) △차덕용(07) △최 근(02) △최규상(72) △최동일(06) △한용희(06) △호영철(58) △홍순일(53) △홍윤기(06)
◆농대 △구문광(60) △김규식(68) △김규식(72) △김남혁(53) △김대경(51) △김동선(02) △김민기(57) △김성봉(54) △김예솔(12) △김용호(85) △김종성(55) △김진곤(56) △김진수(62) △노유선(06) △노진표(55) △박경석(52) △박재복(70) △박정윤(55) △박종국(57) △박창용(55) △백상덕(59) △서진원(05) △송영달(55) △송춘종(55) △송택경(04) △안병권(79) △양범산(55) △엄영현(63) △오학영(56) △오희정(57) △유 솔(09) △유석형(58) △유석황(65) △유중철(57) △윤계남(59) △이기순(69) △이기한(55) △이승찬(65) △이영돈(64) △이종웅(62) △이지형(64) △이진호(57) △이태영(54) △정인무(53) △정태원(57) △최송웅(60) △최영일(46) △한찬택(52)
◆문리대 △공대식(50) △권순식(65) △김광규(60) △김담구(58) △김용태(65) △노영인(64) △도홍길(61) △문 용(49) △박홍규(62) △박희주(53) △방재환(66) △변창실(54) △서일환(55) △송병회(51) △신동철(58) △신화영(59) △윤임구(61) △이규일(53) △이근남(68) △이덕주(66) △이돈형(58) △이정덕(55) △이종규(56) △이종무(58) △이주영(62) △이평우(48) △장갑석(53) △장진수(65) △전석홍(54) △정광우(64) △정지식(61) △정지영(57) △정춘영(50) △정태식(56) △정한택(46) △조창래(66) △차기벽(46) △최연균(67) △최영길(58) △최용옥(52) △최정호(52) △허두표(60) △홍경화(54) △홍혜숙(68)
◆미대 △박한진(57) △정정자(60) △최경주(04)
◆법대 △강명식(61) △강이수(58) △강인현(56) △곽규택(90) △김경만(58) △김기인(58) △김명진(74) △김봉환(61) △김북지(48) △김순구(58) △김영한(62) △김일덕(56) △김창국(56) △김철수(90) △김철용(54) △노영구(51) △박성현(07) △박홍우(70) △반성우(53) △배상오(55) △서승완(58) △석성환(54) △신상갑(53) △심상명(60) △오정돈(79) △오종권(65) △윤상목(52) △윤정경(55) △이기환(56) △이동렬(68) △이상칠(52) △이재원(77) △이제재(47) △이주성(76) △이창범(53) △이태희(58) △이하우(58) △임승관(70) △전주혜(85) △정광욱(06) △정상조(57) △정창섭(74) △조근호(77) △조성일(61) △조영목(02) △조해녕(61) △지도훈(07) △채윤주(86) △최춘기(57) △한경수(72) △한원도(55) △허만조(64) △허승태(73) △홍성인(58)
◆사대 △강신홍(53) △강정식(59) △고지연(84) △김 탁(52) △김기곤(52) △김동주(86) △김병수(59) △김성진(53) △김세훈(85) △김숙희(60) △김윤혜(10) △김재성(79) △김재은(50) △김종석(55) △김창규(58) △김화인(04) △남규욱(43) △민병례(61) △박노학(50) △박순애(50) △박승한(53) △방재곤(62) △백남춘(52) △백영묘(98) △변영희(66) △서견룡(60) △성기종(54) △신명자(56) △신승기(83) △신태우(58) △심숙주(74) △안상술(51) △안희익(54) △오범호(93) △우상혁(56) △유완수(55) △유자효(68) △유회연(59) △이강법(57) △이남구(58) △이석주(56) △이성구(64) △이성규(57) △이성진(53) △이우진(53) △이정태(70) △이종락(58) △이주호(07) △이현택(53) △임원종(52) △장제흥(55) △전인숙(73) △정관덕(59) △정광윤(08) △정두현(60) △정수옥(76) △정찬현(74) △천낙경(51) △최계숙(52) △최생인(53) △최원규(58) △홍성숙(50) △홍인기(54)
◆상대 △강태석(51) △고봉상(71) △김상희(69) △김선정(54) △김장현(54) △김재수(58) △김종호(54) △박순태(56) △박진국(67) △서규상(53) △성백규(52) △손명환(61) △안희중(59) △어윤봉(57) △오우현(55) △유방연(61) △유병규(54) △유병인(58) △육무수(53) △윤계섭(64) △윤길현(52) △이봉길(58) △임영식(57) △전수영(57) △정진택(68) △제정오(57) △조동회(55) △허남린(53) △허재경(56) △현임종(56)
◆생활대 △강창자(57) △김경숙(82) △김난이(77) △김세리(09) △박주희(85) △성홍경(57) △이창배(57) △조규연(58)
◆수의대 △김동환(82) △김명석(08) △김진영(60) △박종영(61) △우영제(64) △유승창(63) △조충호(49) △홍완표(64) △황병주(57)
◆약대 △강순철(59) △국진섭(57) △김규형(53) △김만극(47) △김홍집(57) △명석상(65) △변은자(51) △손선일(59) △송순자(60) △안양찬(53) △이갑열(53) △이재헌(45) △이종화(55) △이홍래(52) △차민정(09) △천길순(52)
◆음대 △박세원(66) △이기원(49) △조대현(97)
◆의대 △강내열(56) △박성구(59) △박신근(61) △박용재(65) △박재홍(80) △변창세(69) △오세윤(59) △윤경애(79) △이수연(11) △이종혁(55) △장운삼(45) △조관재(08) △조진규(46) △차왈보(53) △최관흡(52) △한만희(59)
◆치대 △강우곤(64) △구연우(54) △김두현(58) △김명국(54) △김수용(82) △김화춘(59) △백승진(75) △성소래(99) △송병욱(65) △안진수(05) △유경렬(50) △윤명국(59) △윤훈용(53) △이규송(58) △이기오(86) △이민구(69) △이은승(10) △이준기(55) △주영숙(55) △한광헌(68)
◆대학원 △김종수(79) △양기주(95) △오형재(79) △윤제범(82) △최귀인(65)
◆MBA △강민기(07)
◆경대원 △이영희(67)
◆교대원 △김기태(71) △변정숙(64)
◆국대원 △원준희(12)
◆보대원 △김귀향(79) △김영웅(75) △김주희(72) △노재영(65) △신금호(72) △이지은(06) △이한구(69) △정건작(87)
◆행대원 △강성원(68) △박재석(71) △장세용(93) △정영섭(66) △최찬섭(11) △허성두(71)
◆환대원 △윤화일(79) △이동관(03) △전은선(10) △채승기(81) △최창식(82) △허 완(74)
◆AMP △김 반(46) △김교철(25) △김수곤(20) △김영광(65) △김용수(15) △김응열(25) △문만수(32) △박인종(25) △박찬경(35) △서재희(25) △신종식(64) △심갑보(3) △오동빈(22) △유재우(47) △윤한팔(71) △이성길(34) △이정희(64) △장활수(13) △정기택(31) △정상봉(24) △정연동(48) △조내벽(31) △진홍균(9) △최경희(38)
◆AIP △김광철(34) △박재홍(7) △이세광(43)
◆ACAD △남종우(30) △노정기(36) △박기철(39) △박신광(40) △오필기(2) △윤용인(21) △이경영(7) △이근일(40) △조강호(37) △조헌형(35) △최병인(5)
◆ABP △양병기(30) △유충열(29)
◆SGS △강완수(30) △전우대(2)
◆APC △노형규(20) △박종현(20) △이우진(4)
◆CHCN △박희심(1)
◆HPM △김재영(10) △이은정(14) △제진호(32)
◆AMPP △김용철(15)
◆AIC △박병휴(10)
◆AFB △곽영철(14) △김기백(14) △김형일(14) △방주철(14) △이우현(14) △임대빈(14) △장창주(14) △정윤희(14) △홍영표(13)
◆AMPFRI △이종무(11)
◆ACPMP △강희양(10) △김락중(6) △김임배(2) △안재홍(11) △이금기(11)
◆ALP △김요성(8) △이태근(19) △홍승룡(19)
◆ASP △김진호(1) △유태완(16)
◆ABKI △이금남(4) △임해송(4) △최홍규(5)
◆KFL △김옥수(18) △박은경(18) △천태일(11) △최향연(17)
◆FNP △공재기(5) △류재철(3) △장근무(6) △차용범(5)
◆AWASB △김용출(1) △박헌준(1) △박희준(2) △전창린(2)

분 담 금

◆시드니지부 99만원

2015년 1월	
연 회 비	51,710,000
평생회비	34,930,000
입 회 비	270,000
분 담 금	990,000
계	87,900,000
2015년 누계	87,900,000

COLOR
GOLF
WEAR
루이까스텔
2015
SPRING
LOUIS CASTEL
PARIS
(주) VL&CO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9 NC타워 (02)548-6801, 6835 www.louiscastel.com

THERMAL EXPANSION JOINT
Safe Piping Systems
JOINT YOOCHANG THERMAL SYSTEMS CO., LTD.
www.ycthermalsystems.com
THE WORLD BEST JOINT LEADER
30년 이상의 역사,
3,000개 이상의 프로젝트 납품.
대표적 적용 사례 (빌딩)
• Burj Khalifa (세계 초고층 빌딩, 162층)
• 인천 국제공항
• 잠실 롯데 슈퍼타워
• 부산 국제 금융센터
• 63빌딩
• 킨텍스
• 목동 현대 하이페리온
• 아이파크 해운대
• 삼성 타워 펠리스
• 동북 아시아 트레이드 타워
대표적 적용 사례 (플랜트)
• 호남 한국 화력발전
• 울산 한화 케미칼
• 여수 열병합 발전소
• LG 화학
• 고려아연
• S-Oil
• OXY Oman
세계 품질의 신축이음관 선두기업으로 정부품질 인증과 UL 인증을 포함한 25개 특허, 41개의 시험성적서 및 품질인증서를 보유.
조인트 유창 써멀 시스템 ㈜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품질 향상으로
신축이음관 설치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고,
월등한 신축량으로 조인트 설치 개소를
줄여 시공성을 향상 시켰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편리한 유지보수 기술을
적용시켜 안정적이고 고 능률의
piping system을 구축하였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연구 개발로 품질 향상을
통해 2006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버즈칼리파에 납품을 성공적으로 하였고,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신축이음관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Yoochang Ball Joint Seismic Cycle Test Report
미국 캘리포니아 San Bemardin County Medical Center에서 진도 8.3의 설계 조건에 따른 Ball Joint Seismic Test 결과 유창 Ball Joint는 Seismic Test에 합격하여 버즈 칼리파 타워 소방배관에 시공됨.
조인트유창의 주요 생산제품
■ 플랜트용
■ 빌딩용
Spare Pak Slip Joint
Spare Pak Ball Joint
Spare Pak Multi Joint (초고온, 고압용 LS NIKKO 적용)
Dual Pak Underground Slip Joint
Dual Pocket Multi Joint
Dual Pocket Slip Joint
Intergral Spare Pak Slip Joint
Intergral Spare Pak Ball Joint
Vico Joint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가현로 182-35(가현리 317-14) TEL : 031-988-9205~6 FAX : 031-988-9208 ycbonsa1@chol.com
부설연구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31(구로동 222-8) 코오롱디지탈타워 빌란트Ⅱ 1201호 TEL : 02-2081-1970~7 FAX : 02-2081-1978
www.ycthermalsystems.com